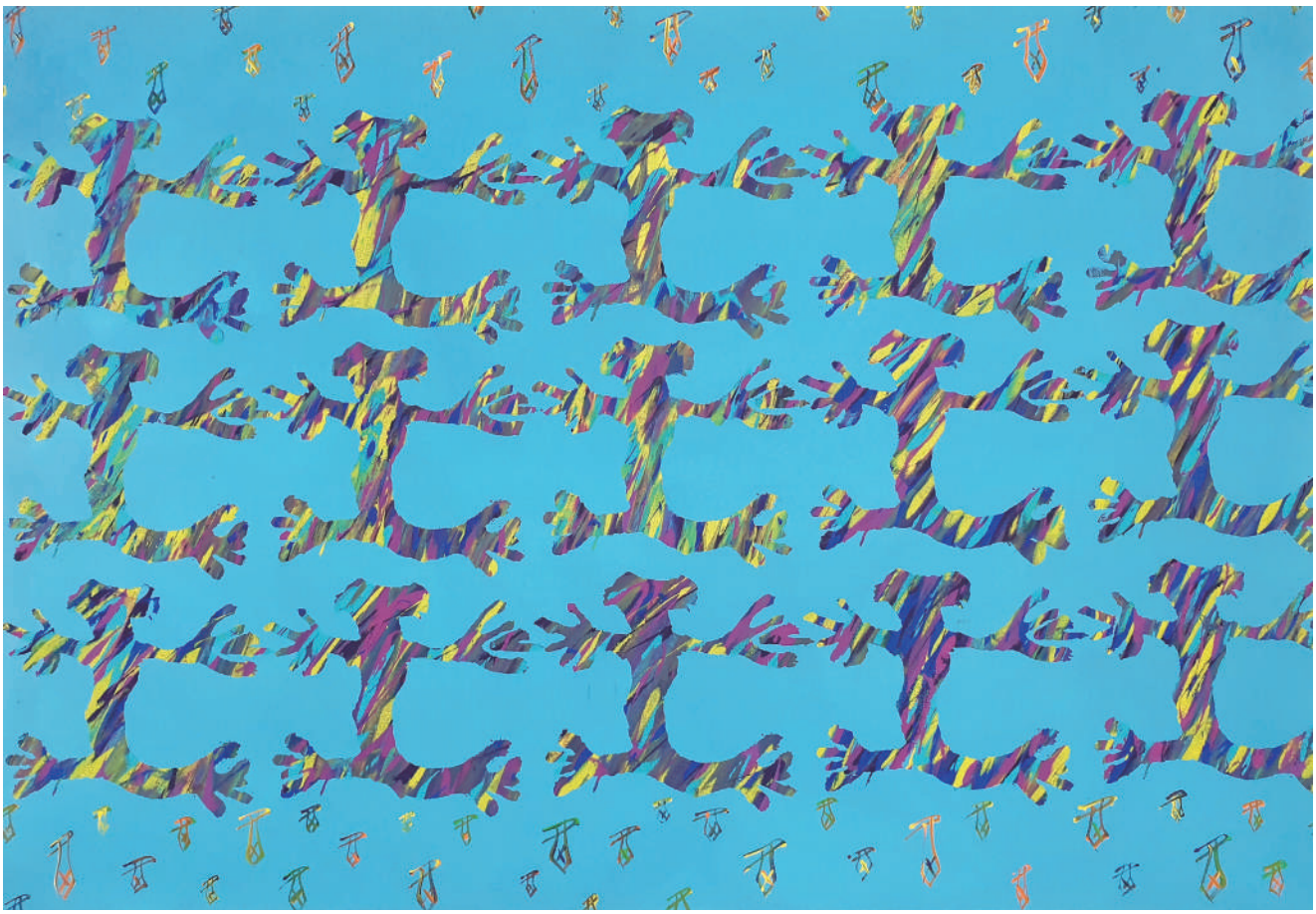
ART BUSAN MONTHLY

# 예술부산

2023·1
VOL.211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예술회관**은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연습실을 실비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예술회관은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순수한 열정과 참여로
대중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만나는 곳입니다.
문화적 향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연, 전시, 문화예술 전반을 어우르는 무한한 창작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 문화를 제공합니다.

---

**부산예술회관 대관시설 면적**

**공연장** 597.56㎡ (240석)
**회의실** 87.62㎡ **3층 전시실** 122.57㎡
**4층 전시실** 116.32㎡ **4층 연습실** 102.12㎡
**2층 연습실** 94.05㎡ **1층 연습실** 52.62㎡
**지하주차장** 약 60대 주차 가능

---

**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
www.bsart.or.kr

**대표전화** 051) 631-1377
**대관문의** 051) 612-1376

ⓒ **윤준환** 건축사진가

# JANUARY 1

공연장 / 전시장 / 회의실 / 예술아카데미 / 야외광장

| SUNDAY | MONDAY | TUESDAY | WEDNESDAY | THURSDAY | FRIDAY | SATURDAY |
|---|---|---|---|---|---|---|
| 1 | 2 | 3<br>〈댄스스포츠/김희랑〉<br>오전 10시~10시 50분,<br>2층 연습실<br>〈라인댄스/김희랑〉<br>오전 11시~11시 50분,<br>2층 연습실<br>〈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br>오후 1시 30분~3시 30분,<br>1층 공연장 | 4<br>〈아랑고고장구/김강남〉<br>오후 2시~3시 30분,<br>2층 연습실 | 5<br>〈댄스스포츠/김희랑〉<br>오전 10시~10시 50분,<br>2층 연습실<br>〈라인댄스/김희랑〉<br>오전 11시~11시 50분,<br>2층 연습실<br>〈한국무용 심화반/김혜경〉<br>오후 2시~3시 50분, 4층 연습실<br>〈한국무용 기초반/김혜경〉<br>오후 4시~5시 50분, 4층 연습실 | 6 | 7<br>극단 가람 _책먹는여우<br>오전 11시, 오후 2시, 4시<br>010-2284-4842 |
| 8<br>극단 가람 _책먹는여우<br>오전 11시, 오후 2시, 4시<br>010-2284-4842 | 9 | 10<br>〈댄스스포츠/김희랑〉<br>오전 10시~10시 50분,<br>2층 연습실<br>〈라인댄스/김희랑〉<br>오전 11시~11시 50분,<br>2층 연습실<br>〈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br>오후 1시 30분~3시 30분,<br>1층 공연장 | 11<br>〈아랑고고장구/김강남〉<br>오후 2시~3시 30분,<br>2층 연습실 | 12<br>〈댄스스포츠/김희랑〉<br>오전 10시~10시 50분,<br>2층 연습실<br>〈라인댄스/김희랑〉<br>오전 11시~11시 50분,<br>2층 연습실<br>〈한국무용 심화반/김혜경〉<br>오후 2시~3시 50분, 4층 연습실<br>〈한국무용 기초반/김혜경〉<br>오후 4시~5시 50분, 4층 연습실 | 13<br>부산국악협회 무속분과 기획<br>공연 _'진도씻김굿 보러가자'<br>오후 7시, 010-4591-0214 | 14<br>〈유랑프리/강유정〉<br>오후 1시~5시, 4층 연습실 |
| 15<br>(사)유공자 복지문화예술원<br>부산지사, 오후<br>010-4545-0264 | 16 | 17<br>〈댄스스포츠/김희랑〉<br>오전 10시~10시 50분,<br>2층 연습실<br>〈라인댄스/김희랑〉<br>오전 11시~11시 50분,<br>2층 연습실<br>〈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br>오후 1시 30분~3시 30분,<br>1층 공연장 | 18<br>〈아랑고고장구/김강남〉<br>오후 2시~3시 30분,<br>2층 연습실 | 19<br>〈댄스스포츠/김희랑〉<br>오전 10시~10시 50분,<br>2층 연습실<br>〈라인댄스/김희랑〉<br>오전 11시~11시 50분,<br>2층 연습실<br>〈한국무용 심화반/김혜경〉<br>오후 2시~3시 50분, 4층 연습실<br>〈한국무용 기초반/김혜경〉<br>오후 4시~5시 50분, 4층 연습실 | 20 | 21<br>〈유랑프리/강유정〉<br>오후 1시~5시, 4층 연습실 |
| 22 | 23 | 24 | 25<br>〈아랑고고장구/김강남〉<br>오후 2시~3시 30분,<br>2층 연습실 | 26<br>〈댄스스포츠/김희랑〉<br>오전 10시~10시 50분,<br>2층 연습실<br>〈라인댄스/김희랑〉<br>오전 11시~11시 50분,<br>2층 연습실<br>〈한국무용 심화반/김혜경〉<br>오후 2시~3시 50분, 4층 연습실<br>〈한국무용 기초반/김혜경〉<br>오후 4시~5시 50분, 4층 연습실 | 27 | 28<br>〈유랑프리/강유정〉<br>오후 1시~5시, 4층 연습실 |
| 29 | 30 | 31<br>〈댄스스포츠/김희랑〉<br>오전 10시~10시 50분,<br>2층 연습실<br>〈라인댄스/김희랑〉<br>오전 11시~11시 50분,<br>2층 연습실<br>〈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br>오후 1시 30분~3시 30분,<br>1층 공연장 | | | | |

예술부산

ART BUSAN MONTHLY
VOL.211
2023 JANUARY 1

# CONTENTS

**권두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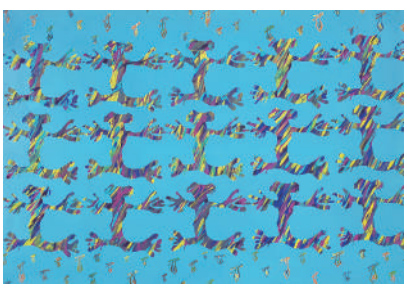
06 2023 계묘년,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되길 _ 박형준

**신년인사**

08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안성민
09 부산광역시교육감 하윤수
10 부산예총 회장 및 단위협회장

**예서제서**

14 2022 굿바이 송년 _ 정지영
18 2030부산월드엑스포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추진협의회 출범 _ 이효민
22 부산예술회관 – 문화가 있는 날
춤소리예술단 '소리로 풀어내는 김정원의 춤나들이' _ 정지영
24 2022 예술아카데미 발표회 – 예술잇지 _ 이효민
26 부산시립미술관 – 이건희컬렉션 한국 근현대 미술특별전
28 연극 〈꺼삐딴 리〉 기회주의자인가, 시대의 희생양인가 _ 이효민
30 기장 매바위와 어사 이도재 _ 김지윤
32 부산여자대학교 사제동행師弟同行 프로젝트V 춤 – 同人 _ 정지영
34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보면서 _ 김창욱
36 구인전회 고별전
38 김미숙 개인전 'Sunshine'



사람춤(福) _ 116.8×80.3cm

**표지 _ 오수연**

신라대학교 미술학부 한국화과 졸업
동아대학교 미술학부 대학원 한국화전공 석사 졸업
동아대학교 미술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29,30대 부산미술협회 이사장 역임 외
현)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다빈예술공간협회 이사장 외

39 랄프 깁슨 사진미술관 개관 기념전
40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 친애하는 흙 DEAR EARTH전
42 부산교사사진연구회 창립30주년 회원전
44 부산건축가회 건축탐방 _ 김주열

**포토에세이**
46 클래식, 사진에 찍히다 _ 정동민

**열린마당**
50 부산, 에세이로 피다 – 국수를 찾아서 _ 김정화
54 신규공연장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 _ 이효민

**인물포커스**
58 건축가 최새벌 _ 정지영

**예인탐방**
60 작가 오수연 _ 이효민

**예술가열전 204**
62 소설가 강인수 _ 노옥분

**손으로 쓴 문학**
66 복수초 _ 이석래

**들여다보기**
68 연극/ 오랜 기억Old memories _ 김민수
70 영화/ 〈당신 얼굴 앞에서〉 _ 김지연
72 미술/ '사색과 그림일기' 展 _ 진수아
74 음악/ 솔리스트앙상블 _ 이혜영

**기획연재**
76 建築正記Ⅰ _ 강대화
80 고대의 악기Ⅰ _ 임소연

82 예총·전시·공연 뉴스
88 신간 안내
89 메세나 광장 & 정기구독회원 모집

**2023년 1월 통권 211 http://www.artpusan.or.kr**

1997년 10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2011년 8월 31일 변경등록번호 부산 라-01255)
발행일_ 2022년 12월 27일 발행처_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소_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전화_ 051)612-1372 팩스_ 051)631-1378 이메일_ artbusan@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_ 오수연 편집고문_ 조서영(건축가회), 김인숙(국악협회), 김갑용(무용협회), 이석래(문인협회), 박태원(미술협회), 김양호(사진작가협회), 이정남(연극협회), 안규성(연예예술인협회), 서영조(영화인협회), 유영욱(음악협회)
편집장_ 정지영 편집기자_ 이효민 디자인_ 두손컴 제호_ 김종문

※ 본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발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부산예총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 2023 계묘년,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되길

글 _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의 일상에 문화의 향기를 퍼뜨리고 부산의 문화적 토양을 다져오신 모든 문화예술인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어느 해나 연초가 되면 누구나 희망을 품고 비전을 세웁니다. 부산의 문화·예술인들께서는 어떤 꿈을 꾸고, 어떠한 새로운 결심을 다지고 계신지요?

2022년 우리는 그 어떤 해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일상을 되찾고 지역 경제에도 봄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도 잠시, 물가·환율·금리 3고 압박과 어지러운 국제정세는 다시 우리의 발목을 잡으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하나가 되는 위대한 부산시민은 혁신의 역량을 다지고, 파동을 퍼뜨려 나갔습니다. 그 결과 세계 유수 기관의 글로벌 도시 지표에서 부산의 순위가 수직 상승하며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초석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문화 예술인들이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조금씩 열리는 것도 다행한 일 중 하나입니다.

### ■ 내셔널 지오그래픽, '숨이 멎도록 멋진 여행지 25선' 선정

특히 우리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숨이 멎도록 멋진 여행지 25선'에 아시아 도시로는 유일하게 부산이 포함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부산을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멋진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라고 소개하며 영화와 K-팝, 생맥주와 커피 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시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명소로 이집트와 이탈리아 아피아가도(Via Appia Antica),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등이 꼽혔다고 하니, 부산에 산다는 자부심이 더 커지는 듯합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항인 부산항을 보유한 도시로서 개항기 문화 등 다른 곳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분위기에 영화·영상·게임과 K-팝까지 전 세계가 열광하는 K-컬쳐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교섭 활동을 통해 만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부산의 환경과 역사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협력을 요청하거나 호감을 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 ■ 누구나 문화예술 즐기는 도시, 글로벌 허브 도시 필수조건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산을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누구나 찾고 싶은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어야 하고 지정학적 이점 등 저력 또한 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환경,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에 앞선 전제 조건은 단연코 '문화'입니다. 미술과 공연장 등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물론, 그 안을 채우는 콘텐츠의 힘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시 분위기야말로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척도입니다. 실제 세계적인 미술관과 오페라하우스는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수많은 여행자들의 목적지가 되기도 합니다.

### ■ 섬세한 정책으로 문화예술의 근력 기를 것

제가 세계적인 미술관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하고, '이건희 미술관'이 부산에 와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쏠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문화예술 분야는 더욱 크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활동 무대가 좁다 보니, 문화예술인 유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코로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부산 문화예술의 외형적 성장은 물론, 기초체력을 튼튼히 다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부산 오페라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가 2025년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공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그 기반을 탄탄히 조성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실 있는 운영의 바탕이 되는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과 예술 복지 역시 촘촘히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 ■ 2030 세계박람회, 부산 문화예술의 힘 보여줄 메가 이벤트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부산 문화예술의 힘을 기르고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년 4월 국제박람회기구가 부산을 방문하는 실사를 대비해 문화예술인의 협조와 협력이 당장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현대사의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이야기부터 K-컬쳐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부산의 오늘을 문화 예술인들께서 아름답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산이 최종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더 굳세게 손 맞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문화예술도시 부산'의 미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 부산 대도약의 역사 개막 위해 함께 힘 모아 주시길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안성민

존경하는 부산의 예술인 여러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에 희망의 기운이 가득하고 가정에도 행복한 웃음이 활짝 꽃피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2년은 기대와 실망, 희망과 좌절이 교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릴 거라 기대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감염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또 팬데믹 봉쇄가 풀리면 다시 힘차게 뛸 거라 전망됐던 경제도 글로벌 복합위기로 힘든 좌절의 시간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또 한 걸음 미래로 나아갔습니다. 정부와 재계, 온 시민이 마음을 모아 펼친 전방위적 홍보활동으로 세계가 부산의 이름을 더 크게 호명하게 되었고 2030세계박람회 유치로 가는 길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또 염원 중에 염원인 가덕신공항 건설도 2030년 이전 조기 개항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예술인 여러분!

새 희망과 함께 시작된 2023년 우리 부산은 일찍이 없었던 가슴 뛰는 대도약의 역사를 개막하게 될 것입니다.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의 마지막 관문인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170개 회원국 투표가 오는 11월로 임박했습니다. 우리는 화합된 시민의 참여열기를 바탕으로 지구촌 문화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러낼 수 있는 역량을 대내외에 알려 세계인의 마음을 감화시켜야 합니다. 한때 문화 불모지로 불렸던 부산이 오늘날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도시로 만개하고 문화올림픽인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갖추게 된 것은 지역 문화예술의 텃밭을 가꾸기 위해 땀과 열정을 바쳐온 지역 예술인 여러분에 힘입은 바 큽니다. 부산예술인 여러분의 변함없는 열정과 지역 사랑에 대한 마음이 2030세계박람회 유치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힘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이 진정한 예술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존중이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더 자주 만나 소통하며 지역 문화예술인 여러분의 자긍심을 북돋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부산예술계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한 해가 되길

부산광역시교육감 하윤수

다사다난했던 임인년壬寅年 한 해를 보내고,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토끼띠 해의 지혜로운 기운으로, 부산 예술인 여러분들의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부산지역 예술문화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오수연 회장님을 비롯한 예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6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지역 예술인들의 대표 단체로서, 그동안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부산 시민들과 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예술문화 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산 유일의 순수 종합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한 '부산예술제'는 순수 예술과 대중예술, 생활예술을 아우르며 부산지역 예술·문화의 저변을 넓혀 왔으며, 총 23개국 26개 해외 자매도시와의 활발한 예술교류로 우리 부산이 국제적인 예술문화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학가인 헤르만 헤세는, "예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생이 살만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술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줄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정서로 일상의 순간들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뜨거운 예술혼이 담긴 고귀하고 아름다운 예술 활동으로 바쁜 일상에 지친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감동과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는 예술인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예술교육의 활성화로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 향유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계묘년 새해는, 지금의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부산 예술계가 한마음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예술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밝아오는 계묘년 새해의 태양을 보며,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과업도 힘차게 해낼 수 있으리란 희망을 품습니다. 해는 매일 같은 모습으로 떠오르지만 사람의 모습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부산 예술인들이 지닌 작가정신이 올해 더욱 정진하는 작업으로 승화되어 꽃처럼 만개하길 바라봅니다.

올 한 해도 부산 예술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내 평안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정남**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회장(부산연극협회 회장)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띠, 흑묘의 해라고도 합니다. 그동안 움츠려있었던 부산예술계가 다시 한 번 힘차게 나아가길 기원하며, 올 한 해는 모든 부산예술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끼는 성격이 온순하며 낙천적이라고들 합니다. 저희 부산연극협회에서는 긍정적인 토끼의 기운을 받아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신진 예술인들의 등용과 기존 예술인들의 열정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부산 예술인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서로 간에 화합하고 소통하여 신명 나는 부산연극협회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부산연극협회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갑용**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회장(부산무용협회 회장)

지난해는 지구촌 어느 한 곳이라도 편한 날이 없었던 해였습니다. 세월을 보내고 지나온 흔적을 볼 때면 아쉬움이 남지만, 세상은 알수록 새로운 만족감을 주는 듯합니다. 2022년 함께했던 부산무용협회 가족을 비롯하여 부산예총 가족들,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마음에 남은 따뜻한 사랑과 깊은 관심은 2023년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영양분으로 쓰겠습니다. 2023년에도 넘치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라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함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새해에는 하는 일마다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규성**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회장(부산연예예술인협회 회장)

코로나가 창궐하는 와중에도 성상은 흘러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연예예술인협회의 2022년은 다사다난했지만 위기를 기회로 용사비등龍蛇飛騰하고 평사낙안平沙落雁으로 승화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협회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부산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해를 만들겠습니다. 5월에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 가요 및 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부산을 알리고 상징하는 부산항 해양가요제를 개최하며, 10월이 되면 부산실버가요제를 개최하여 부산 시민을 위한 소임을 다 할 것입니다.

부산연예예술인협회 회원 여러분! 부산예총 회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서영** 부산건축가회 회장

회원들의 열정과 화합으로 달려온 부산건축가회는 2022년 창립 60주년을 맞아 성대하게 회갑연을 열었습니다. 축하해주신 여러분께 신년사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우리 부산건축가회는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을 위해 비전 '인간을 위한 건축(ARCH)'을 세웠습니다. ARCH는 Action(행동하는 건축가) Reviving(되살리는 건축가) Creative(창조적인 건축가) Honorable(명예로운 건축가)로, 사람을 위해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이로운 기운을 되살리고, 예술인으로 창의적인 사람이 될 것이며,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명예로운 문화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전 세계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축된 마음을 다잡아 토끼처럼 슬기롭게 헤쳐나가면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리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인숙** 부산국악협회 회장

2023년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계묘년 한 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침체 된 문화예술계의 공연 문화는 점차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로 확장된 오프라인 문화는 물론이고, 서로 만나서 교감하고 예술을 즐기는 형태의 공연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확장되며, 예술문화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부산국악협회는 2023년에도 오랜 세월 우리 땅에 뿌리내린 정신문화이자 고유의 문화유산인 전통음악과 현시대가 요구하는 현대적인 감각을 융합하여 예술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문화를 지키고, 새롭게 발전하는 부산국악협회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 부산문인협회 회장

예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12월 초에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출범식이 열렸듯 이를 위해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인 김지하는 "한류란 일회적인 것도 아니고 이제 엔간히 해둬야 한다는 들뜬 유행도 아니다"라 했습니다.

새해에는 문학인이 앞장서서 모든 예술인이 한류를 꽃피우려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 다 함께 힘써 노력합시다.

**박태원** 부산미술협회 회장

희망과 설렘을 가득 안고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그동안 미뤄왔던 문화예술 행사들이 연이어 막을 올려 신명 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부산미술협회도 전국공모미술대전을 비롯하여 아트페어, 미술제 등을 성황리에 치러내 부산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 한 해도 각 분야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통해 개별적인 성과와 더불어 대중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는 시도들이 이어지길 바라며, 정신세계를 가다듬고 내면을 발현하는 창작 과정을 견뎌내고 있는 많은 미술인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3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김양호**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장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부산시 예술인 여러분! 또 부산 사진인 여러분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임인년이었지만 팬데믹의 끝은 보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빨리 일상의 생활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토끼는 예로부터 온순하고 얌전해서 사회적응이 빠르고, 착한 성품에 유머가 풍부하여 예능 방면으로 재능이 많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토끼의 영민함으로, 희망과 열정으로 즐거움을 주는 예술인 활동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계묘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서영조** 부산영화인협회 회장

2023년 계묘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은 모두 잊으시고 흑토끼와 함께 2023년 한 해, 열심히 뛰시길 응원합니다. 토끼는 부지런함과 예민함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는 영특한 동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새끼를 많이 낳는 까닭에 다복, 다산, 행복의 상징이라고도 합니다. 토끼의 상징처럼 2023년 계묘년은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말처럼 2023년은 웃음이 넘치는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뜻하시는 모든 바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영욱** 부산음악협회 회장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 부산은 부산포, 감만포, 청사포, 백운포를 비롯한 많은 포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2023년은 부산에 새로운 '포'가 생길지 말지 결정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바로 북항에서의 개최를 희망하는 2030부산월드엑스포입니다. 월드엑스포는 남부권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자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드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도시경쟁력의 강력한 무기인 예술문화를 잘 활용해야만 합니다. 예술문화의 핵심인 우리 부산예총의 책임과 역할은 매우 무겁습니다. 모든 회원들의 지혜로운 의지가 뜨거운 구호가 되고, 뜨거운 구호가 유의미한 행동으로 이어져서 부산의 새로운 포, 2030부산월드엑스포가 반드시 유치 확정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황순희** 부산꽃예술작가협회 회장

2023년, 검은 토끼띠인 계묘년은 노력하는 만큼 복이 들어오는 해라고 합니다. 그간 쉽지 않은 시간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여 이제 일상을 회복하는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많은 예술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소통의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이 사회를 살아 숨 쉴 수 있게 만드는 예술인의 힘 또한 기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힘들을 모두 모아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개최를 간절히 빕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보내주신 부산꽃예술작가협회 회원들의 협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 더욱 내실 있는 협회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미자** 부산차문화진흥원 회장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30트렌드코리아가 내놓은 올해의 타이틀 키워드는 "Rabbit Jump", 검은 토끼의 해에 맞추어 잘 듣고 잘 보는 토끼처럼 지혜롭고 유연하게 뛰어올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았다고 합니다. 전통문화를 사랑하고 부산 예술의 부흥을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질긴 생명력으로 이어온 부산 예술계가 화려하게 부활하는 2023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난해에는 음다축제와 함께한 부산예술제를 통해 차茶와 예술의 콜라보레이션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는 부산 전역에 더 깊이 우리 차茶와 예술의 향내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예술인 모두 힘내서 "Rabbit Jump"하고 예술과 함께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

# 굿바이 송년

**2022. 12. 14. 오후 7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시민대동춤

따듯한 음료가 담긴 머그컵을 손으로 감싸면 온기가 마음까지 데워주는 12월이다. 돌아보면 엊그제 새해를 맞이한 듯한데 어느새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지점에 다다랐다.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부산예술회관 기획 공연으로 '2022 굿바이 송년'을 열고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예술과 더불어 새로운 계획으로 새해 희망을 채워가자며 관객들을 초대했다.

1 부산플루트앙상블
2 와락심포니
3 국악실내악단 길
4 듀엣_김민형 양승엽
5 서지영무용단

공연은 국악, 클래식, 무용으로 구성했다. 국악공연은 한여름의 열기를 식혀주는 한줄기 소나기처럼, 클래식공연은 낙엽 가득한 숲길을 산책하는 철학자처럼, 무용공연은 겨울날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은 함박눈처럼, 각각의 특색을 살려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먼저 [와락심포니]가 부산아시안게임 공식 주제가로 타악기의 리듬과 태평소의 신명나는 가락 등 국악기들의 매력적인 음색이 돋보이는 「프로티어」 연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소리꾼 김재은이 전통 민요 「새타령」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억스새타령」을 들려주며 관객들과 호응을 이끌었다. 이어 [국악실내악단 길]은 팀의 창작곡인 「난장판」과 새해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은 「액맥이 타령」을 들려줬다. [이바디예술단]은 「힐링의 꽹과리 연주」에서 꽹과리의 다양한 장단과 드럼의 리듬에 역동적인 연주자들의 동작을 더해 신명난 무대를 선사했다. 특히 쿠바에서 우리 사물 장단을 배우러 온 드러머에게 아이를 따라 관객들도 "아빠 파이팅!!!"하며 응원하는 훈훈한 모습도 연출했다.

[부산플루트앙상블]은 경쾌하고 청량감 있는 레그 타임 Rag time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스콧 조플린의 대표곡 「The Easy Winners」와 「Peacherine Rag」 「Cum-Bac Rag」을 연주했다. 귀에 익숙한 멜로디와 플루트의 잔잔한 악기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었다. 피아니스트는 윤재웅은 스카를라티의 맑은 느낌을 주는 「Sonata K.380.E」와 직접 편곡한 영화 캐러비안 해적 중 「He's a pirate」를 연주했다. 「He's a pirate」는 엉덩이로 곡을 마무리한 특별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도 선사했다. 이어 테너 양승엽은 「You raise me up」을 바리톤 김민형

2

3

은 창작가곡 「마중」을 각각 연주하고 「향수」를 이중창했다.

[서지영무용단]은 〈아리랑춤, 셋〉과 〈부산시민대동춤〉으로 공연을 마무리했다. 〈아리랑춤, 셋〉은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주는 「아리랑」에 걸맞는 춤이 없어 서지영이 직접 안무한 춤으로, 한과 신명을 환희로 표현해 들꽃의 강인함을 닮은 우리 민족의 생명력을 표현한 춤이다. 민요 뱃노래에 맞춰 지도연 서지영 윤정미가 창작한 〈부산시민대동춤〉은 어루기 노젓기 가슴펴기 파도 손뼉치기 등 쉽지만 흥겨운 우리춤 몸짓으로 엮은 일반인을 위한 우리춤이다. 서지영의 안내에 따라 춤을 배우고 춤꾼들과 관객이 하나가 되어 〈부산시민대동춤〉으로 흥겹게 마무리했다.

끝으로 부산예총 오수연 회장은 "매년 새로운 송년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만나겠다"며 부산예술회관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글_정지영

4

5

예술인의 힘으로 미래를 만드는

# 2030부산월드엑스포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추진협의회 출범

**2022. 12. 6.**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예술인들이 힘을 모았다.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각계각층의 독려와 협력이 왕성해지면서 그 효과와 의의에 관한 인식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부산예총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그러한 흐름을 선도해나가고자 한다. 12월 6일 부산예술회관 앞 야외광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진협의회 출범식에 참여하기 위해 온 예술인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출범식에 앞서 오후 1시 10분부터는 여성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열렸다. 부산지역 출신 전문 음악인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조아콰이어]는 아름다운 멜로디의 「Fly me to the moon」 「It's lovely day today」를 연이어 들려준 뒤, SBS 예능 프로그램 '싱포골드'에서 불렀던 「좋은 나라」를 선보이며 예술인들이 모인 행사에 어울리는 무대를 꾸몄다.

오수연 부산예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월드엑스포는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메가 이벤트"임을 역설하며 생산유발 43조원, 고용창출 50만 명 등의 지표를 제시했다. 또한 "월드엑스포는 단순한 기술 전시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술인의 힘이 꼭 필요하고, "상해·두바이 등이 그러했듯 부산을 찾은 관광객에게 우리의 예술문화를 알릴 최적의 기회"라고 강조하며 예술인들이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앞장서 나아가자고 독려했다.

1 오수연 부산예총 회장
2 송숙희 부산광역시 여성 특별보좌관
3 강철호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어진 축사에서 송숙희 부산광역시 여성 특별보좌관은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외 출장 중인 박형준 시장님이 멀리서나마 큰 힘을 받을 것 같다"며 예술인들에 감사를 전했고, 강철호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월드엑스포의 중요한 테마인 문화예

4

5

6

술이 월등히 앞서있는 부산이 힘을 모으면 엑스포 유치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성근 (사)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세계박람회와 예술문화계는 동반 발전하는 관계로써 예술분야가 과학기술, 인문분야와 접목해 더 풍요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추진협의회 출범의 당위성을 밝혔고, 고인범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두바이에서 열린 엑스포에 참가한 경험을 토대로 한 축사와 함께 힘찬 '파이팅'을 선창해 열기를 돋웠다. 부산 예술인 대표로 나온 권달술 부산미술협회 고문은 "예술인이 열심히 해서 내년 4월 실사 때 살아있는 부산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응원했다.

추진협의회 공동대표로는 부산연예예술인협회 안규성·부산연극협회 이정남·부산미술협회 박태원·부산사진작가협회 김양호·부산음악협회 유영욱이 나섰고 박태원 공동대표가 대표로 "예술인들의 바람과 희망이 세계 각국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하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공동대표 5인이 출범식의 하이라이트인 '결의문'을 낭독할 때는 광장에 모인 예술인과 내·외빈들도 '2030부산월드엑스포 부산예총의 힘으로'가 적힌 슬로건을 높이 흔들며 호응했다.

4 오성근 (사)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
5 고인범 부산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6 권달술 부산미술협회 고문

추진협의회는 전국예총과 한국예총의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140만 예술인 서명 운동'을 이끌고 있기도 하다. 이날 출범식이 예술인의 힘으로 미래를 만드는 도약의 발걸음이 되길 희망한다.

글_이효민

**2030부산월드엑스포**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추진협의회 결의문**

**하나.**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지역 예술문화 발전과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엑스포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하나. 2030부산월드엑스포가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무겁게 인식하고 유치 홍보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하나.** 엑스포 유치는 부산의 경제, 사회, 예술, 문화 전반에 걸쳐 한걸음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이며, 나아가 국가 발전의 디딤돌이 될 계기로 보아 부산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기를 절실히 바란다.

하나.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앞장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예술 저변의 확대로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관광 매력 도시 부산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

**하나.**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성공적인 유치를 바라는 예술인의 마음에 동참하여 유치 홍보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과 총력을 모아주길 촉구한다.

추진협의회 공동대표 5인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 춤소리예술단
# '소리로 풀어내는 김정원의 춤나들이'

**2022. 11. 30. 오후 7시 30분**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예술은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 추세에 있고 11월에 첫눈 소식이 들릴 만큼 기온이 뚝 떨어진 수요일 저녁,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으로 사람들이 입장했다. 춤판을 통해 신명난 나들이를 하고 싶었던 [춤소리예술단]의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소리로 풀어내는 김정원의 춤나들이'(이하 춤나들이)를 보기위해서다.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하고 싶었던 예술가와 공연을 보는 게 즐거운 이들이다.

유네스코 사무총장 오드레 아줄레가 '코로나 위기에서 사람들을 연결하고 통합시키는 예술의 힘이 인류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한 말이 새삼 와닿았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수궁가 전수조교인 박천음도 '영남은 춤, 호남은 소리라고 했는데 부산에 와서 보니 귀명창도 많다'고 할 만큼 객석에선 춤이든 소리든 '얼쑤~' '잘한다~'로 추임새를 넣으며 각자의 스타일대로 신명을 즐겼다.

신윤경 손예란 이수영 김보은 백소희의 「진쇠춤」으로 '춤나들이'는 막을 올렸다.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왕과 왕비가 나라를 잘 보살핀 덕을 기리는 의미를 담은 「태평무」는 처음에 왕과 왕비가 함께 추던 2인무였다. 지금은 내용에 따라 독무, 2인무, 군무 등으로 다양해졌다. 이날 공연에서 김정원은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을 역임한 장래훈과 2인무로 「태평무」를 선보였다. 김정원은 담백하면서도 절제된 춤사위로 「영남교방무」와 「살풀이춤」을 홀춤으로 선보였다. 문자영 최우정 백소희 장윤미 김보은은 「진주교방굿거리춤」을, 강수나 문자영 최우정 손예란 장윤미는 권명화류 「소고춤」으로 춤나들이에 풍성함을 더했다.

춤이 있는 곳에 소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소리꾼 박천음은 단가 「홍문연가」로 인사하더니 판소리 수궁가 중에서 「토끼타령」으로 부산 관객들에게 귀 호강을 선사했다. 그의 소리와 입담은 춤나들이에 즐거움을 더했다. 또 애절함을 듬뿍 담은 신재현의 아쟁과 오랜 공력이 엿보이는 정효선의 구음, 여기에 신호수의 장단은 시간을 내 공연을 찾는 이유를 묻지 않아도 알게 해줬다.

[춤소리예술단]은 전통춤을 토대로 악·가·무를 함께 아우르며 지역의 특징을 살려 관객과 소통하고자 1996년 창단했다. 이번 공연은 바람과 호흡과 공기를 소재목으로 춤과 소리를 구성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기운인 숨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숨만큼이나 중요한 소통이 춤을 통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습관은 적이라는 어느 카피라이터의 말처럼 습관적으로 하는 SNS 상의 소통이 아닌 얼굴 마주보고 함께 손뼉치며 한 공간에서 신명을 나누는 그런 공연을 꿈꿨는지 모르겠다. 더 재밌고 알찬 다음 춤소리예술단 공연을 기대한다.

글_정지영

# 생활과 예술을 잇다 – 2022 예술아카데미 발표회

## 예술잇지

**2022. 12. 8. 오후 7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시민들을 위한 예술과 창작 교육의 산실로 기능해온 부산예술회관의 예술아카데미 수강생들이 발표회를 열었다. 생활과 예술을 이어서 일상이 예술이 되는 순간을 만든다는 뜻의 〈예술잇지〉다.

첫 번째 발표는 '라인댄스'로 「I want to break free」라는 신나는 곡에 맞춰 가벼운 손짓을 곁들여 스텝을 밟았다. 동작이 들쭉날쭉한 부분도 있었지만 끝까지 스텝을 밟는 수강생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두 번째는 '댄스스포츠'로, 이날은 왈츠와 자이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토착화된 사교댄스인 지루박을 공연했는데 남녀가 짝을 이뤄 나아가고 회전하는 등 호흡을 잘 맞춘 무대였다. '한국무용'을 배운 수강생들은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왕과 왕비의 춤인 '태평무'를 선보였는데 궁중 의상을 갖춰 입고 나와 시선을 끌었다. 동작이 화려한 춤은 아니었지만 한 동작, 한 동작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색상의 장구와 함께 등장한 '아랑고고장구'는 대중가요 「찔레꽃」에 맞춰 흥겨운 4/4박자 타법의 장구 연주를 선보였다. 타악기 특유의 신명에 수강생

1

2

3

1 라인댄스 2 댄스스포츠 3 한국무용교실
4 아랑고고장구 5 팡팡노래교실

들의 밝은 웃음이 더해져 객석의 호응도 높았다. '팡팡노래교실'에서 트롯 등 대중가요를 배우는 수강생들은 유진표의 「천년지기」를 합창으로 불렀다. 앞선 공연들 사이에는 솔로 무대를 꾸미기도 했다. 초대공연은 '각설이 품바'로 해학과 풍자로 가득한 「각설이타령」 「진도아리랑」 등을 노래하고 말하며 흥을 돋웠다.

전문 예술인이 아닌 생활예술로 배우는 수강생들의 무대다 보니 실수도, 어설픔도 있었지만, 발표회를 위해 기울인 그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발표의 기회를 얻는 건 향상심도 보람도 높인다. 이러한 발표회가 매년 열리는 무대로 고정되어 예술아카데미 수강생들이 예술 활동에 더욱 밀도 있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글_이효민

4

5

1

## 이건희컬렉션
## 한국 근현대 미술특별전

# 수집:
# 위대한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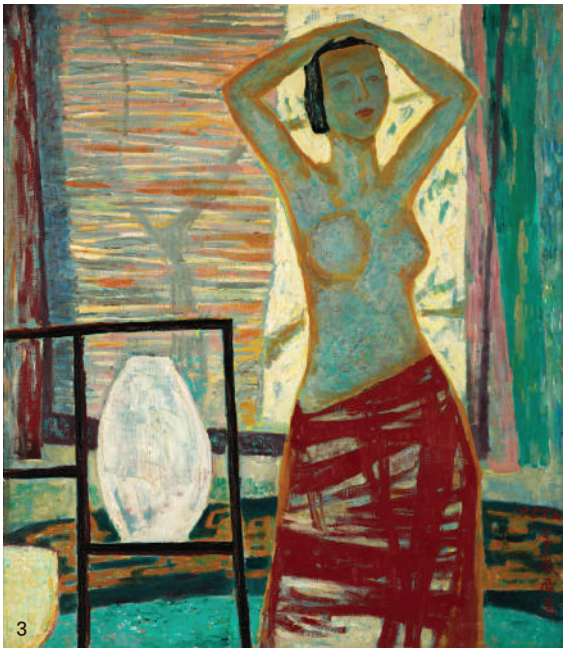
**~ 2023. 1. 29.** 부산시립미술관 3층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되지 않았거나 시장에서의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컬렉터들은 자신만의 취향과 시선으로 작품과 작가의 가치를 수호해'왔고 '컬렉터들의 구입과 후원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작품이, 작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2021년 삼성그룹 故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은 생전 고인의 뜻에 따라 미술품 컬렉션을 국공립 기관에 기증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488점의 미술품을 소장하게 되었고 대구미술관과 전남도립미술관도 소중한 유산을 이어받았다.

'수집: 위대한 여정'는 컬렉터로서 이건희 회장의 발자취를 확장해 공공컬렉션이 된 국립현대미술관과 대구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을 비롯해 [리움미술관], 교육기관의 컬렉션인 [고려대학교박물관], 기업의 미술 컬렉션인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사립미술관 컬렉션인 [뮤지엄 산], 그리고 화상의 컬렉션인 [가나문화재단] 컬렉션을 한자리에 모았다.

1 권진규, 이순아_테라코타, 48×34×22cm,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컬렉션
2 유영국_정상, 캔버스에 유채, 129.5×161cm, 1966,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컬렉션
3 이봉상_역광, 캔버스에 유채, 106×90cm, 1957, 가나문화재단
4 김환기_작품19-VIII-72, 코튼에 유채, 264×209cm, 1972, 리움미술관



국내 최대의 사립미술관인 [리움미술관]은 인건희컬렉션의 또 다른 형태라 할 수 있으며, [뮤지엄 산] 이인희 고문의 안목과 식견으로 20세기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주요 모더니즘 작가들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은 한국의 미에 주목해온 기업 정신에 상응하듯 한국화 작가들의 작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얼굴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묘사를 과감히 생략해 대상의 본질에 주목하게 하는 권진규의 테라코타, 고향의 자연풍경을 점선면 등 기본적인 조형 요소로 환원했던 한국 최초의 추상화가 유영국의 「정상」, 파동을 연상시키는 듯한 역동적인 화면 구성이 돋보이는 김환기의 「작품19-VIII-72」, 색채가 전달하는 명랑한 분위기가 시선을 사로잡는 이봉상의 「역광」, 표현주의적 구상화풍으로 독창적 풍경화를 그린 박고석의 「풍경」, 자신의 창작 신념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담백한 묘사를 추구했던 김형구의 「새와 소녀」 등 전시에는 50여 명 작가의 100여 점 작품이 소개된다.

문의_051)744-2602 / 편집실

연극 〈꺼삐딴 리〉

# 기회주의자인가, 시대의 희생양인가

**2022. 11. 23. ~ 26.**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1962년 전광용(1919~1988)이 발표한 단편소설 「꺼삐딴 리」가 부산예술회관 상주단체인 극단 [누리에] 강성우 연출가에 의해 연극 무대에 올랐다. 기회주의자의 전형으로 평가받아온 주인공 이인국이 움직이고, 말하고, 울고 웃는 모습으로 무대 위에 재현되는 것은, 막연히 상상한 이인국이 실존 인물이 된 것 마냥 묘한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원작 소설이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며 진행된 것처럼 연극 〈꺼삐딴 리〉 역시 역순행적 구성을 보인다. 인물의 의식 흐름을 따르거나 상상 속 악몽을 음악과 율동으로 구현하는 연출은 극적 요소를 극대화하기도 했다. 서사 구조가 평면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다 집중력 있는 관람 태도를 요구하지만, 원작을 읽지 않은 관객도 이해할 수 있게끔 배경 설명을 놓치지는 않았다.

치지직- 오래된 라디오에서 흐르는 것 같은 목소리가 '색이 변하는 동물'에 관한 깜짝 퀴즈를 낸다. 관객 대부분이 변온동물 '카멜레온'을 머릿속 한 켠에 생각하고 있을 때, 어두운 조명 아래 파란 수술복을 입고 모종의 수술을 집도하는 이인국(배우 이재찬)이 등장해 '외과의사' 이인국을 주지시킨다. 간

호사 혜숙(배우 이희선)의 대사에 나오듯 이인국이 운영하는 병원은 "먼지 하나 없이 정결하고 치료비가 여느 병원의 갑절이나 비싸"며 환자를 받을 때도 "병에 앞서 우선 그 부담 능력을 감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특징을 가진 일제 치하 최고의 병원이다. 아들(배우 탁현국)이 데려온 독립군을 응급조치도 없이 내보내는 등 몇몇 설정은 원작과 조금 상이한데, 직관적으로 내용을 이해시켜야 하는 연극의 특성 그리고 개연성을 살리기 위함으로 보였다.

일왕의 항복 선언으로 조선이 해방되고 소련군이 밀려온 상황에서 이인국은 감옥에 갇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러시아어 교본을 공부한다. 때마침 전염병인 이질이 유행해 의사로서 치료할 기회를 얻고 소련군 장교 스탠코프(배우 윤준기)의 수술도 성공하며 "꺼삐딴 리"(영어 Captain의 러시아식 표현)라는 호칭을 얻는다. 이때 수술서약서에 '수술 실패 시 총살'이라 적혀 있어 이인국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내면의 불안과 맞서면서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은 배우 이재찬의 연기력이 돋보인 명장면 중 하나였다. 모스크바에 아들을 유학 보낼 정도로 또다시 승승장구하려 할 때 한국전쟁이 발발한다. 이인국이 "아니, 또?"라고 할 땐 객석 곳곳에서 실소가 나오기도 했다. 우리 민족의 근현대 수난사가 연속됨에 어이가 없어서다.

청진기 하나 들고 월남한 이인국은 이번엔 미군의 환심을 사며 친미 노선을 걷는다. 행방불명된 아들에 대한 죄책감, 미국인과 결혼하는 딸(배우 이설)에 대한 분노와 서운함, 부인이 죽은 뒤 재혼한 혜숙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돌쟁이 아기의 미래를 향한 걱정 등이 이인국을 둘러싸지만, 미국행을 위해 미대사관 브라운 씨에게 고려청자를 선물하는 이인국은 여전하다. "사마귀 같은 일본놈들 틈에서도 살았고 닥싸귀 같은 로스케 속에서도 살았는데 양키라고 다를까. 혁명이 일겠으면 일구, 나라가 바뀌겠으면 바뀌라지, 아직 이 이인국의 살 구멍은 막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대의 격랑 속에 어떻게든 제 발로 서서 뿌리를 내리고자 노력한 인물. 어쩌면 이렇게 이인국을 재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26일 공연이 끝나고 이어진 '관객과의 대화'에서 연출가와 작가, 배우가 이구동성으로 "이인국이 긍정적으로 비치는 것은 경계"했다고 밝혔지만 재평가 자체는 안 하래야 안 할 수가 없다. 좋은 집과 좋은 직업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성공을 최상의 가치로 놓는 시대다. 외국어 공부는 '필수'이고 토익 점수를 갱신하지 않는 사람이 나태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이인국은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한 노력가다. 극 중 "제국대학을 수석 졸업하고도 일류병원장이 되지 못하"여서 "조국이 해준 게 무엇인지"를 묻는 장면이나 자식을 걱정하는 장면은 짠하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를 시대의 희생양이라 말하기는 석연치 않다. 3·1 운동으로 옥살이를 한 백인제 선생(1899~미상, 한국 최초 민립 공익법인 백병원 설립)과 같은 실존 인물들은 과연 개인의 영달을 위한 방법을 몰라서 안 했겠는가. 요즘 각계각층에서 활개 치는 '빌런'들에 비하면 악당 축에도 못 낄 이인국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의인은 못 될망정 범인은 되어야' 함을 끝없이 되뇌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이인국이 기회주의자인지 시대의 희생양인지에 대한 평가를 관객에게 맡기는 열린 결말의 형태도 좋았으나, 교과서 수록작이다 보니 학생 관객을 배려해 더 조심스럽게 접근한 필요도 있어 보인다. 쉽지 않은 구성의 소설을 극화한 초연작임을 감안하면 몰입감이 있고 막이 내린 뒤 곰곰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잘 만든 연극 한 편이었다.

글_이효민

# 기장 매바위와 어사 이도재

## 2022. 12. 3.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부산의 기장 죽성리에는 매바위 어사암御史岩이 있다. 이 바위에는 예전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조선 고종 20년인 1883년에 기장 앞바다를 지나던 세곡선稅穀船이 풍랑을 만나 난파된다. 이때 배에 실려있던 곡식들이 매바위에 널려져 있게 되고, 이를 본 굶주린 어민들이 관아 몰래 훔쳐간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어민들 모두 관아로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곡식도 모두 압수되는 등 가혹한 시련을 겪는다. 조정에서는 이 도난과 가혹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이도재를 암행어사로 기장현에 파견한다. 어사는 기장에 도착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어촌 주민들은 관기로 있던 월매에게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한다. 현장조사를 하러 매바위에 온 어사를 알아본 월매는 춤과 노래로 어사를 즐겁게 하였고, 매바위의 절경과 미색의 월매 덕에 흥겨워진 어사는 그 자리에서 "天空更無物 海闊難爲時 環球九萬里 一葦可航之(하늘이 텅 비었으니 보이는 것이 없고, 사나운 바다는 시객을 위해 춤을 추는데, 저 멀리 돛단배는 언제 무사히 돌아오려나)"라는 오언절구시를 짓고 '어사암御史岩'이라는 글자를 매바위에 새겼다. 이로 인해 매바위는 '어사암'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그 덕택으로 어민들은 관아로부터 형벌과 조사를 면하게 되었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어사암'이라 새겨진 글자가 마모되자 이곳 어민들은 어사 이도재의 은공과 월매의 공로를 못 잊어 매바위에 '이도재'와 '기월매'라는 글자를 새겼다. 그 글자는 지금도 남아 있다.

이 이야기를 무대에 올린 것이 바로 부산국악협회의 창극 공연 〈기장 매바위와 어사 이도재〉이다. 창극이란 판소리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판소리는 소리꾼 1명과 고수 1명이 어떤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부르는 소리라고 하면, 창극은 이런 판소리를 여러 명이 배역을 정하여 소리하고, 연극적인 요소를 가미한 소리극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창극은 우리나라식의 오페라라 할 수 있겠다. 창극의 시작은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판소리로 유명한 신재효과 김세종에 의해 창극은 조금씩 시작되었다. 판소리에서 소리꾼이 창을 하는 중간중간 소리에 맞게 동작을 하는 행동인 '너름새'에 연기를 더 강화시켜 연극적인 요소를 더 부각시켰다.

이러한 창극은 청계천2가 청국인거리에 창희(唱戱 - 청나라 사람들을 따라 들어온 가극歌劇)를 전문적으로 하는 청국관이 설립됨으로써, 판소리 명창들로 하여금 다창多唱 또는 분창分唱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실제로 20세기에 들어와서 창극 발전에 절대적 구실을 하였던 강용환姜龍煥·이동백李東伯 등은 창희의 고정관객이었고 다른 명창들도 창희를 관람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여러 형태의 소리 문화들이 유입되면서 1인극의 판소리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판소리 명창들은 시대적 요구에 맞는 새로운 형식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창극이었다.

그러나 창극도 판소리에서 바로 탄생한 것은 아니고, 대화창對話唱이라는 과도기를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 입체창立體唱이라고도 불리는 대화창은 1902년 황실에서 설립하였던 최초의 황실극장인 협률사協律社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대화창은 명칭 그대로 창을 대화형식으로 주고받는 창극의 초기 형태이다. 그러다가 점차 연기적인 요소들이 가미되고 극적인 형태로 계속 발전하게 된다.

창극은 처음에는 아무 도구도 없이 의상만 갖춘 연기자만 있던 형태에서 점차 도구와 무대장치 등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갔고, 1930~40년대에는 다수의 창극단이 만들어질 정도로 대중화 되었다. 1948년 판소리 여류명창들로만 조직된 창극단인 [여성국악동호회]가 등장하고 〈햇님달님〉 공연으로 크게 인기를 얻은 [여성국악동호회]는 그 여세를 몰아 창극계를 압도해갔다. 1955~58년에는 강한룡의 [햇님국극단], 임춘행의 [여성국악동지사] 등 여러 국극단이 등장하며 국극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오늘 공연 또한 여성 연기자들로 구성되어 예전 여성국극단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 14명의 인원으로 여러 배역을 소화한 출연진들의 노고로 소수少數의 공백을 느끼지 못하였다. 공연을 보는 내내 기존의 판소리 레퍼토리에서 느끼지 못하는 우리 지역의 향토색을 짙게 느꼈다. 소리 중간중간에 들려오는 부산의 사투리, 기장지역의 특산물 등은 너무도 반가웠다. 또한 극의 내용에 여러모로 잘 어울렸던 무대배경과 적절한 조명의 사용은 제한적인 무대에서 극의 전개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연출되었다. 그리고 녹음된 반주를 쓰지 않고 무대 밑에서 국악 반주를 하여 더욱더 생동감을 주었다. 실력 있는 소리꾼들과 완성도 높은 연출, 그리고 라이브 반주는 한순간도 지루할 수 없는 생동감과 감동을 주었다. 특히 이 공연은 2022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 선정작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공연화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한다. 우리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공연은 중앙집중적인 현재의 공연실태에서 지역의 예술문화가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우리만의 강점과 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지역문화의 이야기가 발굴되어 예술문화의 모티브Motive가 되어서 부산 예술문화 발전의 기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글_김지윤 부산예술대학교 강사

# 부산여자대학교 사제동행師弟同行 프로젝트V
# 춤-同人

**2022. 12. 3.**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Their gaze〉

아름다운 동인同人들을 만나고 왔다. 12월 3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있었던 부산여자대학교 사제동행 프로젝트 다섯 번째 무대로, [BWC댄스컴퍼니]가 주관한 '춤-同人'이다.

[BWC댄스컴퍼니]는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스포츠재활무용과 교수와 졸업생 그리고 재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한 해 동안 흘려온 땀이 헛되지 않도록 되돌아보고 내일을 맞을 준비를 하는 무대를 열어 왔다. 올해 '춤-同人'은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가 춤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진'하며 더불어 '춤 문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창작산실로서 거듭나고자 기획'되었다.

공연은 1, 2부로 나누어 전통춤의 창조적 계승과 장르간 융복합, 컨템포러리 댄스 및 다양한 춤언어를 선보였다.

첫 무대는 한국민속무용 〈鶴-놀음〉으로 동래학춤을 모티프로 학의 우아한 자태와 상징적인 의미를 풍류꾼의 신명과 덧배기춤으로 표현했다. 김해성 교수가 안무하고 이주헌 김한동 김선영 이예리가 반주를 맡고 송소란이 구음을 얹었다. 〈雨(비우)II〉는 한국창작무용으로 가랑비와 궂은 비가 갈마들며 갈라지고 메마른 내 마음을 적셔주지만 비 그친 후 다시 시작되는 방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진 한국창작무용 〈落花流水〉는 강 위에 떨어진 꽃 한 송이가 물을 따라 흘러가는 모습을 춤언어로 형상화한 것으로 만학도의 춤 공연이었다. 한국창작무용은 모두 김선영 교수가 안무했다.

현대무용 〈Their gaze〉는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감정들을 이야기한 것으로 올해 부산무용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언주 전임강사가 안무했다. 벨리댄스 〈氣〉는 몸뿐만 아니라 기는 마음활동을 지배하는 정신에도 작용된다는 내용으로 신유정 겸임교수가 안무했다.

이날 공연에는 스트릿댄스 두 작품이 무대에 올랐다. 〈공간〉은 나만을 위한 공간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며 배타적이지만 타인의 공간을 받아들이는 이해의 과정을 거치면 보다 큰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학생들이 직접 안무하고 춤을 췄다. 〈Brother〉는 영국 에든버러 영아티스트 선발자인 서덕구 외래교수가 안무한 작품으로 슬럼프를 극복하고 열정을 다해 무대에 서는 춤꾼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의 동행을 지역을 대표하는 소리꾼 박성희는 힘있고 우직한 발성 위에 애절함과 정교함이 있는 미산제 흥보가 중 〈화초장 대목〉과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으로, 예술단체 [백의]는 비보잉 〈B-REMIND〉로 축하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학-놀음〉

동인同人은 어떤 일에 뜻을 같이하여 모이는 집단을 일컫는 말이다. 대부분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사용한다. 알랭드 보통은 '많은 예술이 처음에는 남의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 자신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생각과 태도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발견'한다고 했다. 무대 위에 있는 예술가와 객석에 앉은 관객들은 그날 하나의 공연을 보며 열심히 달려온 학생들을 위해 큰 박수를 보내며 함께 즐거움을 만끽했다. 공연을 펼치는 예술가만큼은 아니어도 객석에서의 어깨춤이나 환호가 이미 동인이 되었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잠깐 일상을 잊고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는 것, 바로 예술의 힘이다.

글_정지영

〈B-REMIND〉

다시 오페라하우스를 생각한다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보면서

연말연시는 언제나 다사다난하다. 한 해의 끝자락, 때때로 밤거리에 성탄 트리가 불을 밝히고, 이따금 구세군의 종소리도 들려오지만, 거리마다 울려 왔던 크리스마스 캐럴은 어느새 멎은 지 오래다. 불이 그리운 계절, 거리의 음악도 사라진 우리 시대,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차고 어둡기만 하다. 겨울 속의 봄, 그나마 따뜻한 음악에 마음을 녹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웠다고 해야 할까?

지난해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는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가 사흘간에 걸쳐 무대에 올랐다. 19세기 이탈리아의 작곡가 베르디(G. Verdi 1813-1901)의 명작이자 세계의 영원한 고전이다. 더욱이 이 작품은 국내 최초로 소개된 서양 오페라인 동시에 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그래서 가장 즐겨 찾는 오페라 공연이기도 하다. 1948년 [조선오페라협회]가 서울 시공관市公館에서 첫 공연을 가진 〈라 트라비아타〉는 청춘남녀인 알프레도와 비올레타의 순수하지만 비극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주요 등장인물로는 비올레타 발레리(파리의 고급 매춘부, 소프라노), 알프레도 제르몽(시골 출신의 부르주아 청년, 테너), 조르주 제르몽(알프레도의 아버지, 바리톤) 등이다. 주역으로 무대에 오른 솔리스트로는 왕기헌·정혜리·박현진(비올레타), 양승엽·장지현·김준현(알프레도), 안세범·유용준·강경원(제르몽) 등이었고, 이들은 부산 성악계의 중추로서 지역 오페라문화 활성화에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공연 둘째 날인 12월 10일 무대에는 정혜리(비올레타)·장지현(알프레도)·유용준(제르몽)을 비롯해서 한우인(가스톤)·정수정(플로라)·이기백(마르케제)·김경한(바로네)·신명준(도토레)·도현미(안니나)가 각각 캐스팅됐다.

비올레타 정혜리는 프리마 돈나(prima donna, 제1의 여성, 즉 오페라의 주역 여가수)로서의 연주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특히 제1막에 나오는 「이상하다, 이상해E strano! e strano!」, 「아, 그이였던가Ah, fors'e lui」, 「언제나 자유롭게Sempre libera」로 이어지는 잇단 아리아가 그랬고, 하이 C, $D^{\flat}$, $E^{\flat}$음과 같은 고음과 최고음, 기교적인 멜리스마melisma의 자유자재한 구사는 대단히 극적인 것이었다. 연기력 또한 빛났다. 1막의 화려하고 뜨거운 비올레타, 2막의 외롭고 슬픈 비올레타, 3막의 창백하고 초췌한 비올레타와 같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목소리와 표정,

그리고 제스처가 그렇게 보이게 했다. 다만 1막에서 비올레타의 정열, 혹은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색 의상을 입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또한 알프레도 장지현은 부드럽고 서정적인 미성美聲을 자랑했고, 제르몽 유용준은 중후하면서도 투명한 음색이 돋보였다. 또한 플로라 정수정은 훤칠한 키에 선이 굵은 목소리가 두드러졌고, 안니나 도현미의 음성은 오히려 하녀下女답지 않을 만큼 해맑았다.

여기에 섬세하고 엄밀한 [경상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 이칠성)의 음향효과, [대구오페라콰이어]와 [센텀합창단]의 합창, 파트별 음향의 조화와 균형 등이 더해졌다. 〈라 트라비아타〉는 볼거리도 적지 않았다. 단순하되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무대장치, 즉 공중에서 내려오는 와인 잔盞들, 무대에 배치된 샹들리에, 정지된 동백꽃과 산화散花 장면 등이 그러했다. 여기에 [ADD컴퍼니]의 발레 장면도 볼거리를 한층 더했다. 그러나 때때로 노래와 일치하지 않는 자막, 자막에 나타난 오기誤記 등은 자못 아쉬운 것이었다.

한편,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 40%에 이르는 공사는 총 건립비 3,050억 원을 투입, 오는 2024년 10월에 개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페라하우스의 운영주체 문제는 물론, 공법 변경 및 설계 부실문제, 공기 지연에 따른 추가 예산문제 등이 잇따라 불거졌다. 이에, 준공 및 개관 시점 또한 불투명해졌다.

게다가 지역 오페라의 인력풀에 대한 문제도 노출된 바 있다. 올해 부산오페라 시즌에 참여할 단원 공개모집에서 지원자가 미달되어 추가 모집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원 각 30명씩을 뽑을 계획이었으나, 지원자가 24명(오케스트라 8명, 합창단 16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연습횟수만 해도 10회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보수는 기껏 30~40만 원에 불과해 마침내 '열정 페이' 논란마저 불러 일으켰다.

부산의 랜드마크, 부산의 문화관광 거점시설…. 다 좋은 말이고, 훌륭한 수사修辭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산오페라하우스가 부산의 오페라와 오페라 문화를 창출해 나갈 사람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달은 보지 않고, 언제까지 손가락 끝만 바라볼 것인가!

글_김창욱 음악학박사(Ph. D)·음악풍경 기획위원장

1

## 원로 미술작가들의 예술혼

# 구인전회 고별전

**2022. 12. 14. ~ 21.** 피카소화랑

부산 순수미술의 원로작가들이 모인 [구인전회]가 마지막 전시를 열었다. 창립전을 했던 피카소화랑에서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열린 고별전을 찾은 예술인들은 아쉬운 마음을 안고 작품을 감상했다.

구인전회는 상호 간의 발전을 위한 교류를 도모하고 후배들에게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자 강선보 故 김종근 故 박기택 윤종철 네 명의 작가로 출발한 미술단체다. 창립전(2006. 8. 20. ~ 26.)을 개최한 이래 2019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전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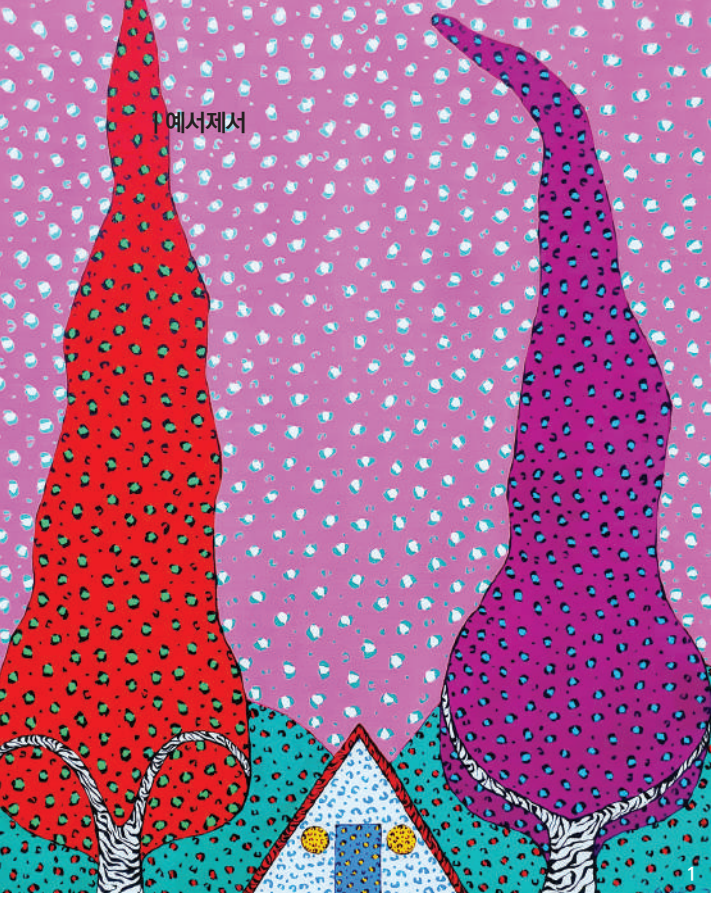
1 김용달_GIKIMI-2218, 아크릴, 한지, 경명주사, 45×37cm, 2022
2 강선보_상황(SITUATION), Oil on canvas, 68×83cm
3 윤종철_여가, Oil on canvas, 53.0×45.5cm
4 송영명_가을 향기, Oil on canvas, 72.7×60.6cm

해왔으나 코로나 19의 여파로 2년 동안 전시를 하지 못했다. 강선보 구인전회 회장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원로작가들의 잇따른 별세로 회를 더 운영할 여력이 없어 고별전을 갖게 되었다"고 이번 전시를 준비한 이유를 밝혔다.

전시장은 강선보 김용달 백낙효 송영명 윤종철 조규철 故 김종근 故 황계용 故 박기택 故 최봉준 故 허정도 11인의 작품으로 꾸며졌다. 유족들의 도움으로 전시가 가능했던 작고 작가들의 작품은 그 깊이와 예술성으로 '죽지 않는 예술혼'을 보여주었다.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작가들은 신작을 비롯해 대표적인 이미지들로 그들의 작품세계를 보여주었다.

구인전회 사무국장을 맡아온 백낙효 작가에 따르면, 아쉬운 마음이 큰 만큼 이를 발판삼아 한 번 더 부산미술 원로작가들이 주축이 되는 '원로작가회' 결성을 계획 중이라고 한다. 부산미술에 큰 족적을 남긴 구인전회가 남은 작가들에게 거름이 되어 주춧돌 같은 단체로 기억되길 바란다.

/ 편집실



## 현실과 상상의 경계에서 찾아낸 휴식

# 김미숙 개인전 'Sunshine'

**2022. 12. 1. ~ 11.** 리빈갤러리

1 Sunshine_Acrylic on canvas, 65.1×53.0cm, 2022
2 나들이_Acrylic on canvas, 130.3×162.2cm, 2022

레오파드 무늬는 무질서 속의 질서를 이루고 또다시 무질서를 반복해낸다. '레오파드 작가'로 불리길 원하는 김미숙 작가는 리빈갤러리에서 열린 21번째 개인전에서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허문 보다 감각적인 이미지를 선보였다.

작가는 2001년 일본 도쿄에서 첫 개인전을 가진 이후 단체전 및 초대전 220여 회, 각종 아트페어, 해외 기획전 등에 참가하며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그의 작품은 강렬한 색상과 레오파드·지브라 무늬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쇼파·찻잔·우산 같은 사물뿐 아니라 자연물과 인물까지 그의 손을 거치면 화려한 모습으로 재탄생한다. 그 화려함의 내면에는 오랫동안 주제로 삼은 '휴식'이 스며있다. 특히 작품 속에서 작가를 대변하는 듯한 인물인 '여인'은 분주한 현실 세계에서 또 다른 꿈을 꾸는 존재다. 여인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찾아낸 빛나는 휴식의 순간이 캔버스에 비일상적인 모습으로 표현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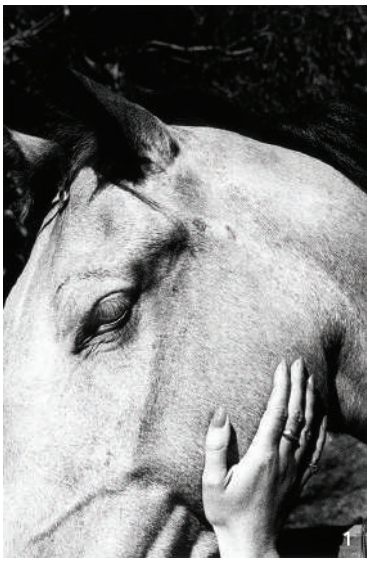
이번 개인전에서 선보인 「달빛소나타」와 같은 작품은 모든 게 멈춘 적요한 공간에서 쉼을 즐기는 듯한 느낌을 준다. 작가는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석처럼 빛나는 반짝임으로 우리의 삶을 응원하는 달빛소나타 아래에서 레오파드와 함께 상상을 넘어 꿈꾸길 바란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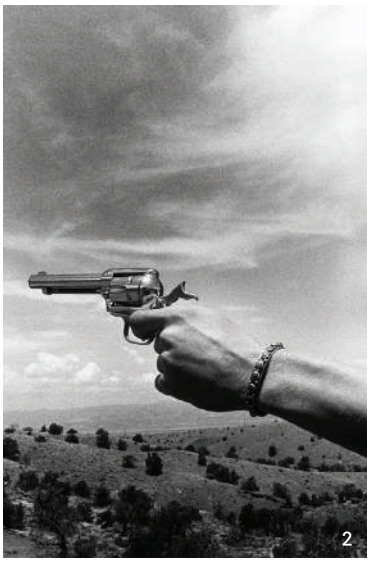
/ 편집실

## 블랙 3부작 The Black Trilogy

# 랄프 깁슨 사진미술관 개관 기념전

**~ 2023. 3. 31.**


1


2

3

고은문화재단이 BMW동성모터스의 공식 후원으로 지난해 10월 랄프 깁슨 사진미술관(이하 사진미술관)을 열었다. 초현실주의 사진의 선구자, 빛의 사진가로 불리는 랄프 깁슨Ralph Gibson을 기념하는 세계 최초의 미술관이다.

사진미술관은 랄프 깁슨을 세계적 거장의 반열에 올려놓은 「몽유병자The Somnambulist, 1970」를 비롯한 초기 대표 시리즈부터 최신작까지, 작가가 65년간 창작한 약 1천여 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획 전시를 통해 그의 대표작을 연중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카메라, 렌즈, 악기, 자작곡을 담은 기타 연주 비디오, 개인 사진, 편지 그리고 출판물 등 작업에 활용한 물품도 소장하고 있어 작가의 확장된 예술세계를 조망할 수도 있다.

3월까지 이어지는 개관기념전 '블랙 3부작'은 사진가의 작품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초기 대표작으로 구성했다. 랄프 깁슨은 30대에 이미 자신만의 독보적인 스타일을 구축했고, 이를 통해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1970년과 74년 사이에 출판된 블랙 3부작은 세계 사진예술사에 획을 긋는 작품인 동시에 아마추어 사진가에게는 교과서적인 작품으로 '출발점'으로 간주된다. 「몽유병자The Somnambulist」 「데자뷰Deja-Vu」 「바다에서의 날들Days at Sea」에 이르는 매혹적인 '블랙 3부작' 120여 점을 빈티지 젤라틴 실버 프린트로 선보인다. 블랙과 화이트를 작가만의 특별한 톤과 리듬으로 완성한 사진작품들이다.

문의_0507-1363-1939 /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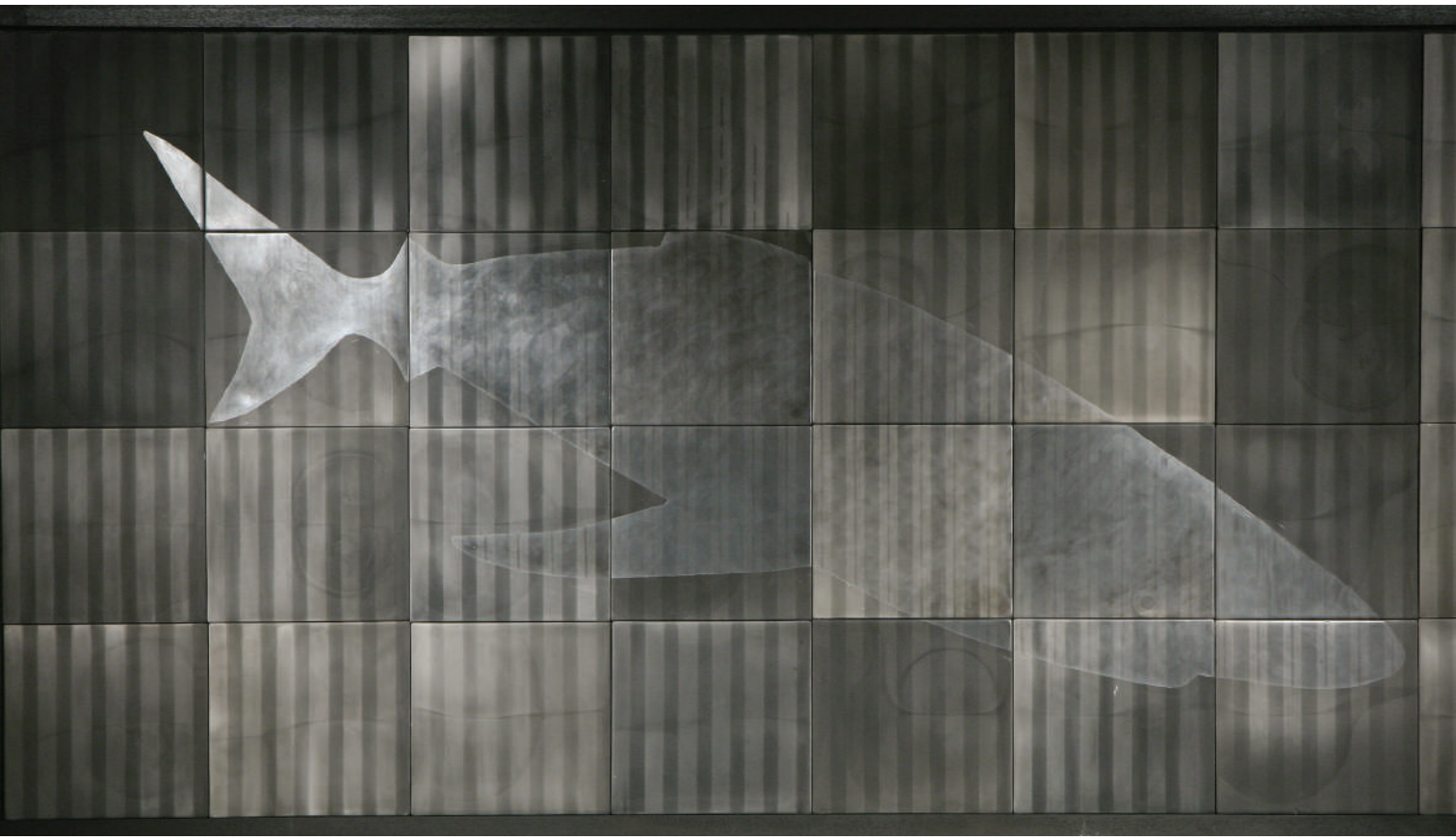
1 ⓒ Ralph Gibson_Days at sea, Gelatin Silver Print, 1974
2 ⓒ Ralph Gibson_Deja-Vu, Gelatin Silver Print, 1972
3 ⓒ Ralph Gibson_The Somnambulist, Gelatin Silver Print, 1970

# 흙을 친애하는

그 어떤 물질보다 소중하고 예민하게 흙을 다루는 이가 도예가이다. 도예가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흙의 종류나 성분에 대해 연구해야 하며 불과 만나는 소성 과정의 변수까지 고려해야 한다. 흙의 가변성과 유연성, 번조과정의 우연성을 수용하고 숱한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자신만의 실험노트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 DEAR EARTH전

**~ 2023. 2. 26.**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이재준_5 연기그림1 블랙케이지

강경연_unseen2 (2)

'건축도자' 미술관을 표방해온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이 2023년 2월까지 돔하우스 2갤러리에서 이재준 강경연 두 도예가의 작품으로 구성한 '친애하는 흙 - DEAR EARTH'전을 연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은 그동안 '흙'의 본질적인 특성부터 '흙'이라는 매체가 가진 조형적 확장성, 건축적 가능성과 실험성에 주목해 왔다. 이번 전시는 팬데믹이 남긴 상처 속에서 자연 그대로의 소중함, 흙의 가치와 중요성을 상기함과 아울러 전통 도자 기술을 기반으로 세라믹 예술의 현대적 변용과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담론의 장을 펼쳐 보이고자 한다.

**이재준** 작가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건축 타일 분야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예술가이다. 2009년 장순각 건축가의 제안으로 두산 아트스퀘어 건축의 외장재 백자타일 디자인과 제작에 참여해 세계적 명성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아이에프 디자인상(IF:International Forum Design Award)을 수상했다. 2011년 명동 하나은행의 파사드 설치 작업은 붓 터치를 가미한 유닛 5천 장에 LED타일 7백여 장으로 완성한 프로젝트로 아날로그와 디지털 기술, 전통과 현대라는 대조적인 패러다임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백자 부조 타일의 미적 가치와 건축적 가능성을 증명했다는 평을 듣는다.

**강경연**은 1998년 첫 개인전 이후 열여섯 번의 개인전을 열며 치열하게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예술가이다. 그 어떤 보상도 담보되지 않은 세라믹 조각의 길 위에서 매회 변화된 작품을 발표하며 자신만의 조형적 서사를 축적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백일몽(Daydream)〉시리즈 일부와 〈누구의 손도 아닌(Not anyone's hand)〉 등 최근 10년의 서사 및 〈보이지 않는(UNSEEN)〉 시리즈 신작을 선보인다.

문의_055)340-7003 / 편집실

# 부산교사사진연구회 창립30주년 회원전

**2022. 12. 13. ~ 18.** 교문갤러리

부산교사사진연구회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회원전을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내 교문갤러리에서 열었다.

[부산교사사진연구회]는 1993년 3월 부산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사진교육분과'로 창립해 그해 12월 부산역 문화관에서 첫 전시를 열었다. 1993년 당시, 교육 현장은 사진에 대한 교양이나 전문성이 부족해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학습자료를 개발하면서 교사가 직접 촬영하고 자료를 제작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사진에 관심과 취미가 있는 교사들이 분과회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사진적 소양을 높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활동에 사진을 접목하기도 했다. 교육청의 조직 개편과 동아리 조직과 운영 방법의 변경에 따라 2011년 [부산교사사진연구회]로 개명했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피사체는 무엇일까. 피사체는 말[言]이다, 작가가 사진으로 우

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셈이다. 30년 세월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함께한 53명 회원들의 작품들은 실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뿌리가 드러났음에도 하늘로 솟아오를 듯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소나무, 가을색으로 고운 용담호를 감싸는 짙은 물안개, 청아한 하늘 아래 노란 해바라기 정원, 노을로 붉게 물들어 하늘과 바다가 하나가 된 풍경부터 카리브 어느 고즈넉한 마을과 검객의 비장함마저 느껴지는 가야금 연주자와 다양한 그림자 형상을 담은 작품도 있다. 앞에 두면 절로 '사진멍'이 하고 싶어지는 고즈넉한 호수 정경들도 작가의 시선에 따라 다채롭게 펼쳐졌다.

회원들은 "부산교사사진연구회가 달려온 과거에는 박수를 현재에는 격려를 보내달라"면서 "박수와 격려를 통해 앞으로 30년도 전진하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 편집실

1 하병철_그림자 2 권은도_두 여인
3 윤영중_Bamboo 4 신갑섭_환희 5 송경숙_b

부산건축가회 건축탐방

# 남양성모성지 대성당에서 건축의 본질을 생각하다

부산에서 3년만에 불꽃놀이가 다시 열리게 된 12월 17일 새벽, 부산건축가회의 건축탐방팀을 싣고 남양성모성지를 향해 버스가 고속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버스 안에서 잠깐 잠을 청한 뒤 눈을 뜨니 창밖으로 하얀 풍경이 펼쳐져 있다. 부산에서는 볼 수 없는 흰 눈이 이번 탐방을 반기고 있었다.

성모성지 초입부에 도달했을 때 눈은 걷히고 성모성지에 자리한 대성당은 성스럽고 눈부신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는 듯했다. 지금의 성모성지는 흥선 대원군의 병인박해(1866) 때 순교자들이 끌려와 순교한 자리로 이를 기리기 위한 가톨릭 순교지로 알려져 있다. 1991년 10월 7일 로사리오의 남양성모성지 봉헌을 시작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곳으로, 틀림없이 성스러운 자리일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양성모성지 대지는 자비의 블라디미르 형상처럼 생겼다.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성모 마리아를 믿는 신자와 신부님의 기도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필자는 후자의 의미가 실현된 것으로 믿고 싶다.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성모성당의 빛 타워를 향해 걸어가는 진입로는 일상의 산책로를 걷듯 평범한 느낌이었으나, 초봉헌실의 외부가 실내로 비춰지고 다시 진입로로 비춰지는 모습은 신자들에게 이 성지의 성스러움과 교리를 되새기게 하는 장치인 듯했다. 이러한 장치는 불교의 산지가람(일주문-천왕문-불이문-대웅전)에서 느낄 수 있는 구성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종교가 가지는 본질적 교리가 비슷하다는 것이 그 연유이다.

성당 전면의 모습은 원통형의 빛의 타워 메스 2개로 이루어져 있다. 육중하게 다가오는 메스, 벽돌과 석재 띠의 조화, 좌우의 대칭, 실내외 동일한 마감 등은 마리오 보타 거장의 건축언어를 필터링 없이 체감할 수 있었다. 특히 빛의 타워

는 중세 성당 첨탑의 의미가 부각되고 사이 종탑과 직선의 세로형으로 길게 배치한 창은 하느님과 대화를 위해 기도하는 신자의 손을 형상화한 것이라 생각되었다.

빛의 타워 양옆으로 난 출입구를 따라 성전의 공간으로 들어가면 무량의 공간이 펼쳐진다. 일반 성전에서 볼 수 없는 인공조명의 반사광과 지붕재의 틈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의 조화는 공간의 깊이, 천장의 가벼움, 목재 루버의 따스함과 갈마들며 성전에 성스러운 빛의 향연을 펼치는 듯했다. 천주교의 교리와 빛이 건축적 상상과 장치로 어떻게 승화되었는지 목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상이 끝날 때 즈음 미사가 시작되었는데 신부님의 말씀과 성가대의 아름다운 음률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필자의 시선은 성당 내 구석구석을 쫓아다니며 훑어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쉼없이 움직이던 시선은 중세 고딕 성당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축적 언어와 장치가 이곳에는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첫 번째는 빛의 타워가 남양성모성지 대성당에게 주는 공간적 장치이며, 두 번째는 채플(소규모 예배당), 세 번째는 장미창이다. 그중에서도 장미창은 중세 성당에서 교리가 각인된 스테인글라스를 통과한 햇빛이 내부로 들어오면 하느님의 이야기가 실내 공간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신자들은 그 이야기를 보고 믿음과 신앙이 굳건해지게 되는 것으로, 성당건축에서 빠지면 안되는 건축적 장치이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아 포기하고 눈을 감고 신부님이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니 그제서야 천주교 교리가 마음속에 담겨졌다.

미사가 끝나고 성당 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며 없던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 채플은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성당의 앙 옆에 포근하게 자리하고 있었고, 플라잉 버트레스(고딕식 교회 건축의 특징적 요소의 하나)는 성당 내부에서 외벽이 아닌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되어 일렬로 배치돼 있었다. 그러나 도무지 빛의 타워가 품은 성당의 공간적 장치와 장미창은 찾을 수가 없었다. 성당건축은 하느님의 교리와 건축공간이 철저하게 계산되어 형성되는 공간인데, 그러한 장치들이 없다는 사실이 큰 아쉬움을 남겼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와 또 다른 성당 공간을 탐방하면서 나머지 2개 장치를 찾을 수 있었고, 마리오 보타의 건축적 사상과 상상 그리고 신자들에 대한 경이로움에 숙연해졌다. 그것은 빛의 타워 내 천창(장미창)이 그리는 천사의 이야기였다. 타워 내부에 드리우는 햇빛이 미사가 끝나는 정오 즈음 빛의 타워 내 패턴과 질감이 살아있는 벽돌 위를 지나는 짧은 시간 천사가 내려와 신자들에게 경이로움과 성스러움을 선물(천사의 날개 모양 그림자)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건축적 노력들이 현시대 건축이 지향해야 할 건축의 본질이라 생각한다. 과거 건축이란 대다수가 돈, 그 시대의 패러다임, 권력 등을 표현하는 물리적 수단으로 발전되어 왔다. 성당건축은 하느님과 신자가 함께 대화하며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특히 건축의 본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건축이 비록 물리적 공간이더라도 남양성모성지와 같이 건축의 근본적 의미 즉 본질을 찾고 독창적인 건축언어와 장치들을 물리적 공간 속에 녹여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건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건축가 마리오 보타에 대한 부러움과 더불어 왜인지 모를 아쉬움으로 대성당을 몇 번 더 돌아보고 다음 행선지로 떠나는 버스에 올랐다. 부산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그 아쉬움이 천사의 날개를 직접 보지 못한 것에서 기인했음을 알고, 다음에 꼭 다시 찾으리라 기약하며 눈을 감고 천사의 날개를 상상해 보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바래졌던 필자의 건축적 생각과 마음이 남양성모성지 대성당과 LG아트센터 서울을 방문했던 이번 '2022부산건축가회 건축탐방' 후 생기를 찾았다. 필자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글_김주열 공간더하기 건축사사무소 대표

1

# 클래식,
# 사진에 찍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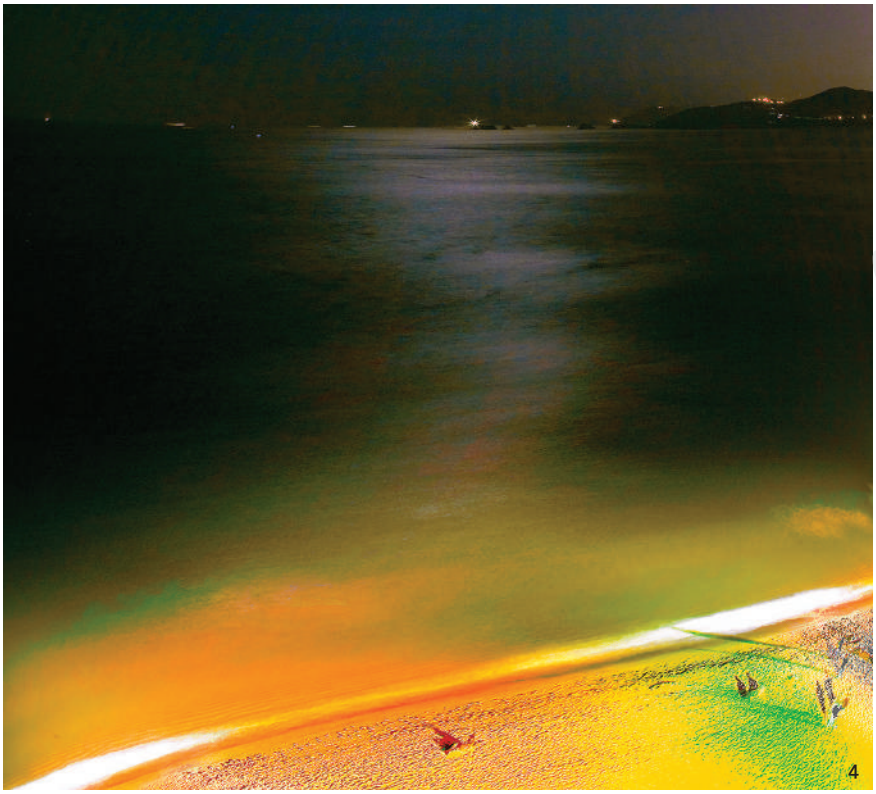
*겨울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지만,*
*따뜻한 방에서 음악 감상을 하기에 좋은 계절이기도 하다.*
*나는 오랫동안 클래식 음악을 들어오면서*
*이를 사진으로 표현해 보고픈 욕망을 항상 가져 왔었다.*

*드뷔시는 "자연이 가져다 준 인상의 기억을 음악으로*
*변용했다"고 말했다.*
*나는 짧으나마 해당 음악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하여*
*음악을 빛의 예술로 변용해 보고자 시도했다.*
*혹여 다른 감상이 있더라도 헤량하여 봐 주시길 바라본다.*

글·사진_정동민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

2

3



4



classical music photograph

5

1 Berlioz 환상교향곡 2 Debussy 바다 중 2악장 파도의 희롱
3 Ravel 무용곡 Bolero 4 Chopin 피아노협주곡 제1번 중 2악장(Romance)
5 Maria Callas가 부르는 Puccni 오페라 Tosca 중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부산, 에세이로 피다 – 열아홉

# 국수를 찾아서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히수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쩡하니 닉은 동티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추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꿩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자욱한 더북한 삿방 쩔쩔 끓는 아르굴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으젓한 사람들과 살틀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 백석의 시, 「국수」 일부*

*국수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백석의 글이다. 마을에 오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구불구불 산멍에 같은 분틀을 타고 오는 것이, 들쿠레한 가을바람과 푹푹 쌓이는 함박눈에 업혀 오는 것이, 먼 옛적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오는 것같이 사발 그득히 담기는 것이 국수라 했다.*

*흔히 한국의 대표 음식, 서민적인 향토 음식, 엄마표 토속음식이라고 입을 모으는 것이 국수지만, 맛과 기억은 사람마다 달라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음식도 국수이다. 누가 끓여주었는지, 어디서 먹었는지, 누구와 먹었는가에 따라 계절과 시간과 공간과 풍경이 국수의 긴 면발처럼 같이 딸려온다.*

*어떤 사람에게는 밥이 생명이며 어떤 이는 빵이 종교적 가치가 될 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국수가 존재의 상징이 되었던 적도 있다. 나는 한 번씩 연어를 소재로 한 동화의 '연어, 라는 말속에는 강물 냄새가 난다.'라는 첫 문장을 국수에 대입시켜보곤 하는데, 국수, 라는 말속에는 언제나 눈물 냄새가 나는 것이다.*

*비록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도시의 내 또래가 상상치 못할 허기를 겪은 시절을 지나왔다. 당시 부역이라는 이름의 공공근로를 하면 정부에서 붉은 밀가루를 배급하였다. 우리 집은 환자인 아버지와 어린 남동생과 새벽 장사 나간 엄마를 제외하면 겨우 앞가림을 하는 나만 남게 되어, 그냥 호미만 들고 나가서 호명에 대답만 하고 왔는데도 밀가루 배급 날이면 어김없이 내 몫도 있었다.*

*그것을 들고서 읍내 국수방에 가져가면, 문틀부터 바닥까지 허연 분가루가 날리던 허름한 공장에서 머리에 뒤집어쓴 것이 밀가루인지 백발인지 알 수 없는 노인이 늘 국수를 뽑아주었다. 우리 집 국수를 찾으러 가면 하얗고 매끈한 국수 다발 사이로 두툼하고 누르붉은 면 다발을 내어주었다. 그때는 붉은 국수를 받아오는 손이 조금 부끄러웠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불그죽죽한 밀가루야말로 요즈음 건강빵을 만드는 전통 우리 밀 통밀가루라고 할 수 있겠다. 국수가 천장에 실타래같이 걸려서 바람에 꼬들하게 말라가던 풍경은 국수 대접 앞에만 앉으면 예나 지금이나 몽환처럼 일렁인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70년 전통의 구포국수 공장에 한번 가보고 싶었다. 부산의 웬만한 국숫집에 가면 보이는 상호나 상표가 구포국수 아니던가. 그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유일하게 국수가 생산되는 곳이기도 하니 어린 시절 제면기가 있던 국수방을 되새길 수도 있겠다. 구포는 조선 시대부터 곡물 집합소였고 전쟁*

때는 피난민들이 모였던 곳이라, 전쟁 직후에는 구포에서만 스무여 개의 국수 공장이 가동했고 절정 때는 서른여 곳이 성업했다고 들었다. 그러나 먹거리가 풍부해지고 국수의 명성도 옛날 같지 않으니 도시에서 국수 공장으로 버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겨우 이곳 하나가 맥을 이어가는 정도라고 했다.

공장은 구포역 철길 뒷골목을 돌아 모텔촌과 주택 사이에 끼어 있었다. 공장이라고는 하나 평범한 가정집 3층을 개조한 건물이다. 다행히 친절한 직원이 1층 공장을 개방해주며 이것저것 설명을 곁들여준다. 길게 연결된 제면기 사이사이로 반죽된 밀가루가 숨을 죽이며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 몇 개의 롤러가 반죽을 눌러붙여 기다랗게 반죽 띠를 만들어내었다. 반죽할 때 자꾸 치대면 "부르튼 발뒤꿈치만 같은 덩어리가 밀크로션을 바른 아이의 얼굴처럼 매끈"해진다던 어느 시인의 말이 딱 맞았다. 마지막 롤러를 지나면 그물같이 촘촘한 격자 홈을 비켜 나오면서 면의 가닥이 잡힌다. 옛 기억과는 달리 기다란 수염 같은 면 타래들은 자동 시스템을 따라 이층 건조장으로 올라가 버렸다. 아마도 다 말려진 국수는 잘리어서 무게를 달고 포장 옷을 입고는 판매용 상자에 얌전히 담겨질 것이다.

어릴 때는 말리는 국수 사이를 지나가다 주인 눈치를 보면서, 멀쩡한 국수 가락을 몇 개 툭 부러뜨려 입에 넣거나 바닥에 떨어진 이삭 국수를 한 움큼 줍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낭만도 없어졌다. 사방에 희끗했던 가루분의 흔적도 없었으며 작업자는 위생복을 깔끔히 입었고 스테인리스 제면기도 새것인양 반짝였다. 인근 구포역 앞에서 국수 체험관도 운영하니 방문해보라고 한다.

체험관 1층에는 진짜 구포국수 집이 있다. 공장에서 가공되는 신선한 국수를 뜨거운 물에 바로 건져 올리니 면발의 쫄깃함은 보장이 된다. 나는 소바나 라면이나 냉면이나 우동이나 짜장보다 국수가 더 좋다. 언제나 그렇듯이 내게 국수는 정신적인 허기까지 채워주는 음식이니까. 기다리는 동안 휘둘러보니 역시 국수를 소재로 한 시詩가 벽에 걸려 있다.

사는 일은
밥처럼 물리지 않는 것이라지만
때로는 허름한 식당에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주는
국수가 먹고 싶다

삶의 모서리에 마음을 다치고
길거리에 나서면
고향 장거리 길로
소 팔고 돌아오듯
뒷모습이 허전한 사람들과
국수가 먹고 싶다

– 이상국의 시, 「국수가 먹고 싶다」 일부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주는"이란 대목에서 울컥 목울대가 막힌다. 어려운 시절에 평양냉면집 2층에 산 적이 있다. 이북에서 내려온 노부부가 삼십여 년간 면을 삶아내었는데 그 커다란 솥에서 끓이는 깊고 진한 육수 냄새가 사시절 올라왔

*다. 나는 그때마다 평양냉면의 알싸한 맛에 침이 고이는 것보다도 내게 다시는 국수를 삶아줄 어머니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슬펐다.*

*국수 맛은 무엇보다 편안함이다. 근사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칼질을 할 때, 옆 테이블의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예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북적이는 장터의 허름한 식당이나 뒷골목 비좁은 분식집이나 낡은 간판 아래서 늙은 어머니 같은 여자가 주름진 손으로 척척 고명을 올려주는 국수를 먹을 때를 생각해보라. 둘러앉은 테이블에서 어디 고상하게 젓가락질만 하게 되던가. 더운 육수 더하듯 자연스레 왁작박작한 대화 속에 끼어들게 된다. 함께 국수를 먹을 수 있는 사이라면 무릇 따뜻한 가슴을 가진 자들이리라. 그 정겨움이 국수의 힘이다.*

*그러니 수행자들도 국수를 가까이한다. 예로부터 절에서는 국수를 스님이 웃는다는 뜻으로 '승소僧笑'라 했다. 스님들이 국수를 좋아해서 힘든 수행을 하면서도 국수만 보면 저절로 미소 짓게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생전에 성철 스님이 드시던 간장 국수가 생각난다.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스님이 국수를 삶아 건져서 아무것도 넣지 않고 약간의 조선간장만 넣어 맛나게 드시는 것을 보았다. 그 후 나도 가끔 스님을 따라 간장 국수를 해 먹는데 꽤 맛이 괜찮다.*

*메뉴판을 훑어본다. 콩물국수와 열무국수와 비빔국수와 칼국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서늘한 날씨에는 뜨듯한 잔치국수가 최고다. 하기야 요즈음은 국수도 색깔별로 있고 재료도 다양해서 천마국수, 현미국수, 알로에국수, 단호박국수도 나오고 심지어 아침에 로켓 배송되는 국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지금 내 앞에 놓인, 애호박과 정구지 고명에 멸치 육수 내음 풍기는 잔치국수를 따를 수 있을까.*

글·사진_김정화 수필가

부산오페라하우스·부산국제아트센터

# 신규공연장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

**2022. 12. 13. 오후 4시**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

개관을 앞둔 대규모 공연시설, 부산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의 '운영 주체'를 어떻게 정하고 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어 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시민토론회가 12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에 앞서 오재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산 공연생태계 강화를 위한 공연시설 운영모델과 실행방안'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연구의 필요성과 부산지역 공연예술생태계 특성을 짚은 뒤 대규모 공연시설 운영 방향의 핵심 사항을 설명했다. 최적의 운영모델로는 '재단법인' 형태를 제시했고 재단법인 설립의 현실적인 실행방안까지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이상철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박희용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김평수 부산민예총 이사장·양승엽 부산예총 부산음악협회 부회장·장진규 드림문화오페라단 단장·정두환 CBS교향악단 예술감독·김기환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장이 다양한 의견을 냈다.

결론적으로 초기에는 '책임운영기관' 형태로 운영하되 재단법인 설립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부산시가 책임운영기관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한 뒤 자율성과 전문성이 높은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날 거론된 내용을 알기 쉽게 줄여서, 그러나 상세하게 정리했다.

## 《연구 결과 발표》

□ **오재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산 공연생태계 강화를 위한 공연시설 운영모델과 실행방안'이라는 연구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규모 공립 시설로써 부산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가 개관하기 전에, 지역 공연예술생태계의 자생력과 창작·유통·소비 선순환 강화를 위해 운영모델과 운영모델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먼저 부산지역 공연예술생태계의 특성 및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은 서울 및 수도권보다 공연시설, 공연단체, 공연인력 등의 수가 적고, 공연시설과 단체의 자체 수입비율, 공연인력 1명당 연평균 수입, 공연예술관련 학과 졸업생 수 등도 서울 및 수도권의 50% 이하 수준입니다. 즉 자체수입 비율이 낮아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습니다. 부산지역에서 유통되는 공연 건수와 이를 소비하는 관객 수는 서울뿐 아니라 대구지역보다도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공연시설의 역할 재정비와 운영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지역 공연예술생태계를 선도하는 거점시설로서 운영 방향의 핵심이 되는 4대 기조는 '공공성' '전문성' '안정성' '파급성'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문화회관은 부산시민 문화권 보장과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는 '시민문화예술중심 공간'이라는 역할을 갖고 기능해야 합니다. 부산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는 '전문공연예술중심 공간'으로 공연생태계 강화 관점에서 역할과 기능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운영모델은 '재단법인'입니다. 문화예술기관 법인화는 운영비 절감, 수익성 강화 등을 통한 공공재원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목적과 예술적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목적 모두를 지향합니다. 재단법인 운영모델은 3가지 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별 운영 법인'으로 부산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는 것인데 각 특성에 따른 명확한 미션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부산시 재원 과다 지출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통합 운영 법인'은 부산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를 하나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인데 시설 간 경쟁 최소화, 재원 마련 다각화와 관객 저변 확대를 위한 통합 멤버십 개발 가능 등의 장점이 있고, 지리적으로 떨어진 두 시설을 함께 운영해야 해서 조직 결속력이나 정체성 확립이 어려울 수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북항 법인'으로 부산오페라하우스, 국제아트센터 운영과 북항해양문화지구 관리 기능을 총괄하는 통합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브랜딩과 통합 마케팅 총괄 대응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힘들고 조직 비대화로 효율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3가지 실행방안에는 첫 번째 점진적 신규 재단법인 설립, 두 번째 기존법인 변경을 통한 재단법인 설립, 세 번째 기존법인 통합을 통한 재단법인 설립이 있습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부산문화회관 역할과 기능 재편을 전제로 한다는 점, 중앙정부 및 부산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어 추가 신규법인 설립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방안인 점진적 신규 재단법인 설립은, 5년 내 재단법인 설립을 목표로 부산오페라하우스와 국

제아트센터에 최상급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작·기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시적 책임운영기관 또는 개관준비를 위한 행정 조직과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민간조직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부산문화회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고 그 법인을 부산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운영을 위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안은 부산문화회관과 기존 문화회관을 통합해 법인 수를 감소시키고 부산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통합 운영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안은 모두 문화기관의 체계 변화와 통합 등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기관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은 초반에 형성된 이미지와 결부되어 구축 및 지속되는 경향이 높으므로 운영모델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과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공연장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도 중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 《지정 토론》

□ **김평수** 부산민예총 이사장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연간운영비가 150억으로 추산되고 시비가 90억입니다. 60억의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겁니다. 운영 방향 4대 기조 중 공공성과 파급성은 담보가 되어 있으니 그렇다면 안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담보가 필요한데, 특히 재정이 중요합니다. 재단법인 설립 전 부산시가 책임운영기관으

로 운영한다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양승엽** 부산예총 부산음악협회 부회장

부산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에 대해 논의하자면 음악인에 관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는 음악인들은 기대가 큰 만큼 걱정도 있지만, 좋은 공연장이 생기는 만큼 좋은 공연을 보여주고자 하는 사명감이 큽니다. 통합법인 운영 모델을 보면 '예술감독'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좋지 못한 선례가 타 지역에 있다 보니, 예술감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개선 방향도 나왔으면 합니다. 여러모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정성에 입각하여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장진규** 드림문화오페라단 단장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건 10년 넘게 논의해왔습니다. 이제 부산시에 맡기면 책임지고 잘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부산시와 부산오페라하우스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느냐입니다. 건물을 멋지게 지어도 부산이 없다면 '부산' 오페라하우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예술이 녹아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또한, 부산 예술인을 위한 운영방안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 **정두환** CBS교향악단 예술감독

원론적이지만 문화예술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치로 드러나지 않아도 인적·심리적 양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은 공공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전문가는 향유하는 시민입니다. 시민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이번 신규 공연장은 목적 지향적이어선 안됩니다. 목적 달성적이어야 합니다. 오페라하우스는 오페라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공간을 짓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장고, 전시장 등 오페라를 '만드는 공장'이 필요합니다. 외국은 제작부터 무대에 올리는 과정까지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무대 세트만 정비하면 언제든 다양한 공연을 올릴 수 있습니다. 부산오페라하우스도 양질의 오페라가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페라 아카데미를 만들어 공연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지역성을 고려한 인사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 **박희용**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

신규공연장에 대해 우려가 많은데, 이런 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규공연장은 대관 위주의 공연장이 아닌 전문공연예술중심 공간으로 가야 합니다. 운영 형태는 현실적으로 신규법인 설립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책임운영기관으로 할 필요성도 있는 만큼, 책임운영으로 하다가 이후에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의 경우에도 2003년에 개관했는데 2013년에 재단으로 변경을 했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 **김기환**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장

오페라단 연합회, 무용, 음악계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작극장'이라는 큰 틀에서 '시즌 단원'을 모집하고 부산문화회관에서 연습을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의 경우엔 재단화는 대부분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항과 두 공연장의 연계는 우려가 있습니다. 서둘러 운영 주체를 결정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업소 형태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출범하는 것이 유력합니다. 그렇지만 65~70%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방침을 갖고 권한과 예산도 더 자유롭게 쓰게 할 계획입니다. 예술감독은 이와 별개로 곧 선임할 예정인데 형식은 공모가 아닌 초빙이 될 것입니다.

취재·정리_이효민

# 건축가 최새벌

건축사사무소 1458 대표
부산광역시 공공건축가
· 2022부산건축상,
2021경상남도 우수주택 선정 등

카페 M.T.C

지난해 9월, 부산예술회관 전시장에서 열렸던 2022 부산예술갈매랑축제 '오브제전'에 부산건축가회 회원으로 최새벌은 어항과 화분을 결합한 「낙화유수」를 출품했다. 어항의 물을 교체할 때 버려지는 물이 화분으로 배수되도록 한 구조였다. 예전 마당에 조성했던 식물과 물고기가 있던 연못을 축소한 개념이란다. 위에서는 보이지만 옆에서는 보이지 않기에 이왕이면 어항을 투명한 재료로 마감해서 금붕어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최새벌 건축가를 만나자마자 물었다.

*"그건 사람의 관점이죠."*

최새벌 건축가는 건축사사무소 1458을 운영하며, 지난해 사상구 엄궁동에 위치한 카페 M.T.C(Man Today Core)와 연산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G1으로 2022부산건축상 동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2019년에는 덕천동 근린생활시설 Being으로 금상을 받기도 했다.

*"건축주들이 부산건축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획일적인 것에서 벗어나 주위 풍경과 잘 어우러지면서도 독특한 디자인의 건축물을 지으려는 클라이언트가 늘어나면 지역 건축 지형도 한결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M.T.C도 건축주의 요청으로 응모를 했다가 수상 소식을 들었다. 수상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건축가로서의 보람은 다른 곳에 있다. 최 대표는 주택이든 근린생활시설이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특히 주택의 경우 삶의 패턴을 다양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양산에 3대가 함께 사는 주택 설계를 의뢰받았을 때 집 가운데 중정을 두고, 아이놀이방과 연결해 마루를 내었으며, 2층에는 물놀이 공간도 넣었다. 시공단계가 수월하지 않아 애를 먹었지만, 건축주가 마루와 물놀이 공간을 활용한 가족의 일상을 SNS에 올린 것을 보면서 하나하나의 공간이 잘 활용되고 있어 건축가로서 뿌듯함을 느꼈다.

공간예술인 건축은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게 다른 예술과 다른 점이다. 비전문가인 건축주의 언어

와 생각들을 건축적으로 구체화하고 전문가로서 제안도 서슴지 않아야 한다. 잘 지은 건물은 외관이 디자인적으로 색다르기도 해야 하지만 건물 내부 공간의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축은 삶을 담는 그릇이라는 표현처럼 내부 공간의 구성에 따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고 다채로워질 수도 있다. 필요로 하는 공간을 잘 만들어 주는 것에서 나아가 새로운 공간을 제안하고 그 공간에서 펼쳐낼 미래를 상상하게 해주는 것이다.

최 대표는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소통 부재로 인한 사회 문제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역할이 크다고 말한다. 마당과 마루가 있던 예전 주택에서는 신발을 벗고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도 이웃 간 소통이 푼푼하게 이뤄졌다. 마당에서 소일거리를 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나 옆집에서 아는 척을 하며 안부를 주고받았다. 무시로 대문 안으로 들어와 마루에서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고 동네 주민에서 식구가 되었다. 이런 공간들은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소통도 가능하게 해주었다.

자본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건축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하지만 재난으로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하면서도 빠르게 집을 짓는 방법을 제공하거나, 친화경적인 건축 자재를 개발하고, 부족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도시 개발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건축을 통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해법은 제시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숫자로 명명한 '건축사사무소 1458'이라는 독특한 상호는 음악에서 차용한 것이다. 완전음정은 두 음이 동시에 어울렸을 때 완전히 어울리는 음의 거리를 뜻하는 말로 완전 1도, 4도, 5도, 8도가 있다. 건축도 조화의 법칙이나 조화를 찾는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해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1458'이라 이름하고 그 법칙 안에서 정체성을 만들어가려 한다.

치유의 측면에서 예술은 낯선 것과의 대면을 통해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반복되는 일상에 새로운 공간을 제안해 다른 방식의 삶을 설계해주는 최 대표는 건축가로서 예술가로서 이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닐지. 최 대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는 이곳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보다 따듯한 곳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글_정지영

낙화유수

# 세월의 지층을 그려내는 작가 오수연

작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부산교육대학교 한새갤러리에서 열린 '세월의 여정' 전은 모처럼 '작가' 오수연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일필의 붓으로 그려낸 작품들은 머나먼 과거인 선사시대, 인류가 바위에 새긴 암각화가 지닌 원시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듯했다. 현재 부산예총 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예술행정가로서 더 알려진 그에게 작가로서 대화를 청했다.

기실 '암각화'는 작품의 모티브일 뿐 아니라 미술 작가가 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시작점이기도 하다. 울산 반구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 나선 게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이다. 1971년경 학계에 보고되었지만 어떤 보존 대책도 없이 그저 물살과 바람을 감당하며 인류 역사를 품어내는 암각화를 본 순간 그의 마음에 일어난 파동은, 그 어떤 예술품을 봤을 때보다 강렬한 것이었다. 감동은 관심이 되었고 세월에 유실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딛고 사람들에게 더욱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작품을 이해하는 실마리는, 그가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하기 전부터 서예를 해왔다는 사실에서부터 풀리기 시작했다. 훌륭한 글씨를 모방하는 데서 시작하는 서예 공부는 유명한 서가들의 글씨를 비석에서 탁본하여 법첩으로 만들어 하곤 한다. 암각화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마음먹고 연구를 할 때 '탁본'은 좋은 방법이 되어주었다. 한편 바위에 새긴 그림이라는 것이 그 형상이 명확하지만은 않은데 거기서 각종 고래의 모습을 찾고 거북이며 새, 돼지를 찾는 건 어느 정도 상상력을 요한다. 갑골문에서 주머니 같은 걸 그린 게 '복福'자로 변형된 것은 문자 이전에 그림의 형태가 존재함이다. 그가 갑골문 자전을 연구한 것이 암각화 이미지를 읽어내는 것에도 적잖은 도움이 됐으리라 보는 이유다.

이번 전시의 작가 노트에서 "이서입화以書入畵의 장점을 살린 일필의 필선과 한지의 부드러운 번짐을 이용"했다고 말한 것과 같이 서예로 다진 필력은 회화에도 묻어났다. 작품 속 동물과 사람의 형태에 생명력이 느껴지는 까닭은 주지의 사실처럼, 일필휘지로 힘차게 그린 때문이 아닐까. 그에 더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면 곳곳에 변형한 한자를 빼곡히 그려 넣는 것은 다산과 풍요 등을 기원하며 바위를 쪼고, 긋고, 돌려파서 그림을 새겼던 이들의 주술적 기원의 정신을 잇는 것으로도 보인다.

기법적으로는 현대적인 판화의 방식을 활용한 점이 눈에 띈다. 매끄러운 질감을 지양하고 물의 번짐으로 얻는 자연스러움의 미학을 좋아하는 그는 화선지를 직접 배접하고 물감을 수차례 중첩해 바탕색을 만든다. 오묘하고 깊어진 바

탕색은 바다 표면 아래의 물결도 되고 표면이 일정치 않은 바위가 되기도 한다. 그 위에 실크스크린 기법을 사용해 그림을 앉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첩과 반복의 지난한 작업이다. 이는 원형인 암각화가 이 땅의 뿌리를 품고서 현시대에 태고의 신비를 드러내 준 것에 대한 화답인지 모른다. 오랜 연구로 미술적 재구성을 해낸 작품에 세월의 누적되는 흐름이 담긴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좋은 작가는 끊임없이 연구해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작가다.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시도하고, 바쁘더라도 붓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는 작가다. 그런 작가의 작품이어야 우선 '좋은 작품'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다. 고대 중국 화의 거장 반천수潘天壽가 "상도常道는 반드시 변해야 한다"라고 한 것과 궤를 함께하는 답이다. 이번 전시도 사실 급작스레 준비한 건 아니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고쳐 쓰지 말라(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는 말처럼 수년을 저어했으나 더 늦기 전에 작품을 발표해야겠다 마음먹었을 뿐이다. 이전에 발표한 서화전의 도록에는 깊은 서력이 느껴지는 글씨와 구도가 참신하고 획기적인 문인화 작품 등이 70여 점 실려있는데, 최근 작품과는 주제가 달라서 왜 이번 전시를 계획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부단히 혁신해야 한다는 작가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함일 테다.

그가 지향하는 작가의 길은 곧아 보인다. 이전과 지금의 작품은 주제가 다르지만, 종이의 질감을 중요시한 점, 그림에 생동감을 주는 각종 표현법을 활용했다는 점 등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는 건 지향점이 명확해서일 것이다. 지역 예술인의 대변자로 걷는 길은 울퉁불퉁하다. 누구나 외면하고 싶은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쓴 것을 삼켜야 할 때도 많다. 그럼에도 끝없이 "작가들이 작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부르짖는 건 "기회가 많아야 작가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라는 소신, "부산의 작가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다. 고되더라도 가능한 한 두 길 모두 힘차게 걸어주길 바람은, 분명 가능하리란 짐작과 신뢰의 발로다.

글_이효민

도자기, 작살고래(福)_116.8×80.3cm

연과 개구리_70×70cm, 화선지·먹·채색·금분

# 다시 태어나도 강단에 서고 싶고 소설가가 되고 싶다

소설가

# 강인수

· 호 송하松河, 필명 강신해姜晨海
· 전 부경대학교 인문사회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부산문인협회 회장 역임(2004~2007)
· 부산시문화상(2000) 황조근정훈장(2004)
한국해양문학상 수상(2008)
· 『낙동강』 등 10여 권의 장편소설, 평론집 등 발간

다 내려놓고도 당당한 계절이다. 피고 지기를 반복했을 교정의 나무에서 세월의 나이테가 느껴진다. 강인수 소설가께서 공직생활의 정년을 맞이했던 부경대학교 '장보고관'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강의를 하는 일이 한 번도 싫었던 적이 없었고, 몸이 아파 강의를 빼먹은 적이 없으시다는 교수님께 지난날을 반추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강인수 작가는 소설가이기 전에 교육자이셨다.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문학과를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5년간 고교교사, 부산공전 부교수로 근무하다,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을 맞았다.

1979년 등단 이후 부산문인협회 회장(2004~2007)을 역임하였으며, 부산시문화상(2000), 황조근정훈장(2004), 한국해양문학상(2008) 등을 수상하였다. 등단한 후 『낙동강』『최보따리』『어부의 노래』 등 10여 권의 장편소설과 『밀물』『맹물선생』 등 7권의 소설집을 발간하였으며, 단편소설 84편과 수필·평론집 6권 등 문단의 원로로서 쉼 없는 집필활동으로 문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집필의 열정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제 늙어 볼품이 없어지셨다며 사진을 찍지 말라는 말씀으로 대화의 문을 여신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여쭈었다. "지금이 제일 편안하다. 산책으로 하루 만보 이상 걸으며 시를 암송한다. 교과서에 나오는 시나 요즘 나오는 괜찮은 시 등 어렵지 않은 시편들을 선택한다. 매일 자유시 15편, 시조 30여 편을 외우다 보니 모임에서 한 마디 하라 하면 말이나 노래보다 시낭송으로 대신할 때가 많다. 이형기의 「낙화」, 천상병의 「귀천」,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 애송시이다."

예전에는 하루 네 시간, 근래 들어 매일 두 시간씩 소설을 집필하신단다. 팔순을 훌쩍 넘기시고도 소설에 대한 애정이 온몸과 눈빛에 가득 배여 있다. 게으른 작가로서 존경심을 담아 귀 쫑긋 이야기를 경청한다.

### 현실에 바탕을 둔 상상력의 소산

강인수 소설가는 현재까지 단편 84편, 중편 10편, 장편소설 10권, 수필·평론집 5~6권을 발표했다. 소설 이외에 논문집과 시집도 출간을 했다. 그의 작품들은 '현실에 바탕을 둔 상상력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작품의 흐름을 단계를 나누어 정리했다.

제1기는 30대 중반의 습작시대와 등단 즈음 단편 『밀물』과 『핏빛노을』을 발표한 때이며, 제2기는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인내천의 동학사상을 형상화한 장편 『낙동강』과 『최보따리』, 제3기는 장편 『어부의 노래』 『페미토피아』와 중편 『오래오래 살아남는 것은』과 『맹물선생』을 발표했던 60대이며, 고희 이후 현재까지를 제4기라고 단계를 나누었다.

제1기는 고교 교사로 재직하며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위한 준비단계였으며, 요산 김정한 선생에게 소설 창작을 사사 받기 위해 대학원에 입학하던 등단 즈음의 10여 년이다. '리얼리즘과 향수'를 표방한 작품을 주로 발표하였다.

제2기는 '동학사상과 민중의 삶'을 탐구하던 시기로 1982년부터 1994년까지이다. 대학원 입학 6년 만에 「동학소설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동학과 관계된 「용담유사에 나타난 인내천사상」, 「춘원소설에 나타난 동학사상」 등 동학사상 관계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13년 동안 동학사상에 푹 빠져 천교도(동학)의 유명 인사를 만나고 천도교 교당을 수없이 탐방하기도 했다.

제3기는 '생태주의와 바다'로 1996년부터 2008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90년대부터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

한 것이 환경문제이어서 생태주의 생태문학이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관심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쾌적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생태주의는 인간중심주의에서 생명중심 내지 생명공경의 시각과 사고이다. 이 무렵 단편 『어귀야 디어라』 『서생포 어부』 『맹물선생』 중편 『오래오래 살아남는 것은』, 장편 『멸치와 고래』 『어부의 노래』 『페미토피아』 등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생태적 삶을 구현해 본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2008년 『어부의 노래』로 '한국해양문학상'을 수상했다.

제4기는 '현실개선의 의지와 미래'를 주제로 인생 4막을 정리하는 단계이다. 그의 나이 칠순에 접어든 이후이며, 38년간 몸담았던 교직에서 물러나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5년간의 강의도 끝냈다. 자유로운 몸이 되어 창작에 전념할 수 있어 좋은 시기라고 회상한다. 노년으로 접어들어 과욕을 삼가고 쉬엄쉬엄 작품을 쓰고 싶을 따름이라고 말하는 표정에서 한가로운 열정을 엿볼 수 있다.

### 바다를 사랑한 소년의 바다 이야기

소설가 강인수 선생은 바다를 사랑한다. 그가 바다를 좋아한 것은 유년시절부터다. 일곱 살 때 일본 사세보의 아이노우라[相浦]라는 포구에 살았다. 2차 세계대전 말기 전쟁통에 아버지는 방공호를 파는 군역에 종사했는데 한국에서 징용 온 사람들을 데리고 십장을 했다고 한다.

전쟁 중이어서 먹는 것이라고는 배급으로 나오는 만주콩뿐이었다. 어머니의 "조선에 가면 쌀밥을 실컷 먹을 수 있다"는 말에 소년은 늘 바닷가에 나가 바다 저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바닷가에서 작은 게와 조개를 잡으며 헤엄치기를 좋아했다. 장성하여 부산에 살면서 여름은 광안리와 해운대해수욕장으로 나갔고, 때로는 이기대 바닷가에 나가 헤엄을 치며 흥합을 잡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현재 바닷가 근처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강인수 소설가의 작품에는 어부와 해녀 등 바다와 관련된 소재가 많다. 해녀를 소재로 하기 위해 몇 해 동안 해녀의 물질에 대한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한 후 남들이 터치하지 않은 물질 작업에 중점을 두었다. 고달프고, 서럽고, 강인한 해녀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물질 작업과 제주 방언에 대한 연구도 병행했다.

바다를 소재로 한 작품이 꽤 많다. 주로 해녀와 어부의 이야기다. 『밀물』 『매물도』 『어귀야 디어라』 『멸치 배』 『서생포 어부』 『파도여 말하라』 『숭어 망쟁이』 『우포늪 사람들』 『어부의 노래』 등등. 어부와 해녀의 삶을 소재로 하기 위해 그는 발품 아끼지 않으며 현장을 답사했다. 『멸치와 고래』를 위해 울산 장생포와 기장의 대변항을, 어부인 이준수와 해녀 아내의 가족사를 서술한 『어부의 노래』를 위해 남해의 미조항, 통영의 삼덕항을 답사했고, 매물도와 우포늪 등 소설 속 수많은 자연과 생태적인 삶을 배경으로 다양하고 생생한 소재를 구하기 위해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 지금 나는 행복해

강인수 소설가는 말한다. 좋을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수필을 많이 읽고, 영화도 많이 보고, 여행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라고 한다. 그러다 보면 섬광처럼 무언가가 떠오르고 그럴 때마다 즉각 메모를 하고, 글은 3개월쯤 후에 써보라고. 그의 집필 방식이라고 하며 다시 정리를 해준다. "한 편의 작품을 위해 떠오를 때마다 메모를 하고, 3개월여 후에 쓴 글은 초고가 되고, 60~80매 분량이 될 때까지 열 번 정도의 수정을 반복하여 퇴고를 한다." 그러면서 글은 행복할 때 잘 써진다고 말한다. 올 한 해 5편의 단편을 썼는데 3편은 괜찮은 것 같아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란다.

소설가 강인수의 소설집과 장편소설

소설을 쓰기 위해 매일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는 작가의 작품 중 최애작품이 무엇인지가 궁금했다. "단편소설로는 등단작품이면서 여러 차례 퇴고를 거친 『밀물』과 『핏빛 노을』이 젊었을 때는 좋았고, 나이 들어서 『숭어 망쟁이』와 근래에 펴낸 『살구꽃이 피는』이 좋다. 대표적 장편소설을 들라면 유년을 소재로 한 『아버지 어렸을 적』이 마음에 들지만 최고의 역작은 『최보따리』이다." 단편 『살구꽃이 피는』은 TV에 방영되었고, 『봄은 오는데』는 유튜브에서 인기가 많다고 귀띔을 한다.

### 문단의 현실에 대한 즉문즉설

문학이 삶에 미치는 영향과 화자보다 독자가 많은 시대의 출판문화에 대해 여쭈었다.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치유가 되지만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여고시절 문학소녀·소년들이 모두 등단했다. 그러다 보니 예술이 고상하거나 품격을 지키기 어려울뿐더러 박사학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다 보니 흐름대로 따라갈 수밖에 도리가 없다.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은 읽을 필요가 없다."

앞으로의 작품계획과 책 출간으로 오는 경제적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다. "1년에 3~4편의 단편을 쓸 것이고, 마지막으로 장편 하나를 구상하고 있는 중이다. 아마도 마지막 장편이 될 성싶다. 경제적 이익? 현재는 1년에 100만 원 정도다. 그것도 잘 될 때 그렇다. 지금은 책 인세는 제로상태이다. 그래서 돈 안 되는 소설 쓰기를 말린다." 그러면서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 좋은 작품을 인정하고 보상해주어야 좋은 작가와 작품을 만날 수 있다"며 문학상 선정에 대한 심사위원의 자세에도 일침을 가한다.

강인수 소설가께서는 지금이 참 행복하다고 말한다. 강의하기를 즐기고, 다시 태어나도 교수가 되고, 소설을 쓰겠노라고 말하며, '자본주의 세상에 돈 안 되는 소설을 쓰겠다니'라는 역설을 펼치시며 환한 웃음을 지으신다. "내 나이에 이 정도로 건강하고 마누라와 생활하며, 아이들도 잘 커 나는 행복하다"는 말씀으로 대화의 창을 닫는다. 그 행복한 미소를 담기 위해 교정으로 향하는 걸음이 겨울나무처럼 곧고 활기차다.

글·사진_노옥분 시인

# 손으로 쓴 문학

No. 12

## 복수초

이석래

눈 쌓인 골을 따라 고향 집에 다 닿으면
"아이고 내 새끼 왔나"
버선발 반긴 할머니
젖은 눈 훔훔 털고서 어서어서 들란다

"배고파 어여 먹어" 할머니 차린 밥상
꽃 같은 노란 콩밥
아지랑이 모락모락
샛노란 꽃망울들이 여기 저기 피었다

**작가노트 |** 할머니께서 지어주던 노란콩밥을 볼 적이면 눈 덮인 산기슭에 복수초가 생각납니다.
샛노란 꽃망울이 지금도 눈앞에서 피고 있습니다.

글_이석래 부산문인협회 회장·한국동서문학 발행인

# RE:VIEW

연극 극단 [빅픽처스테이지]
오랜 기억Old memories_김민수

영화 기도하는 마음 :
홍상수의 〈당신 얼굴 앞에서〉_김지연

미술 정수옥의 '사색과 그림일기' 展_진수아

음악 부산 공연계의 스테디셀러Steady Seller
'솔리스트앙상블'_이혜영

# 오랜 기억 *Old memories*

글_김민수 극작가

연극 〈오랜 기억〉은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유족의 고통에 관한 이야기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끝나지 않는 도돌이표처럼 끝없이 되풀이되는 고통의 시간들. 사건과 관련된 기억은 박제되어 촘촘한 씨줄 날줄의 고통으로 정신을 옭아맨다. 그 시간에 함께 있었더라면,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돌이킬 수 없는 그 날에 대한 후회와 자책은 현재를 살아가는 유족들에게 현재진행형이다. 다만 고통의 시간을 견딜 뿐이다.

죄와 벌, 그리고 남은 자들의 고통에 대해 심도 있게 들여다본 연극 〈오랜 기억〉(김정환 작·연출, 이태경 각색, 러닝타임 100분, 경성대 콘서트홀, 2022. 12. 9 ~ 10일, 극단 빅픽처스테이지)은 2021년 부산문화재단 '청년 연출가 지원사업 최우수작'에 선정된 작품으로 2021년에 이어 새로 무대에 올랐다.

## 스릴러물, 선악의 대립구도 해체

극의 서사구조는 스릴러물의 플롯을 채택하고 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연쇄살인범 장성철(박호천 분)을 둘러싸고 피해자 유족인 성직자 베드로(박센 분)와 정신과 전문의 희주(이태경 분)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여성과 어린아이 등 노약자가 주된 범행대상이었던 장성철이 왜 건장한 남자였던 아버지를 죽였을까'에 대한 희주의 의문이 진실을 찾아가는 내용이다.

또한 극은 전통적인 선악구조에서 결국은 선이 승리하는 기본 구조를 허물었다. 악(범죄)에 대립하는 선(응징, 용서, 화해)이 승리해야 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대중의 굳건한 믿음을 흔들고 허를 찌른다. 반전이 있는 드라마다. 인간의 본성은 과연 선일까, 악일까.

## 인간의 본성 - 죄와 벌, 고통 그리고 회피

무대는 크게 죄와 벌 그리고 고통(현실)을 상징하는 세 공간으로 구획되었다. 업스테이지 좌측에 높은 단으로 설치된 무대는 범죄의 공간(베드로), 중앙에는 징벌의 공간(장성철)인 감옥이, 상수에는 현실을 살아가는 피해자 유족의 삶(희주)이 펼쳐진다.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 장성철은 수십 건의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복역 중이다. 자신의 범행을 가난과 사회의 탓으로 돌리는 영악함을 보이면서. 베드로는 장성철에게 여동생을 잃은 피해자 유족이다. 그는 신성의 대리인인 신부로 장성철에게 접근해 위로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만 내면은 여전히 여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과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자책과 후회로 고통의 시간을 살던 희주는 베드로의 의뢰에 의해 장성철과 마주 앉게 된다. 희주는 장성철과의 면담을 통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는 따로 있음을 알게 된다. 장성철이 즐겨 이용하던 택시기사였던 희주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그를 범인으로 오인한 베드로였다. 베드로의 복수극이 엉뚱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었다. 하지만 베드로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희주에게 항변한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장성철의 잘못이라고. 연쇄살인범도, 신성을 대리하는 성직자조차도 타인의 생명을 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 결말의 개연성 약화

극의 긴장감을 더했던 범죄 공간에서의 수위 높은 액션

은 실상 장성철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베드로의 페이크Fake였다. 베드로가 살해한 장성철 아들의 시신은 동물의 사체로 밝혀지고, 실제 장성철의 아들은 어느 여관방에서 자살한 채로 발견된다.

이러한 결말은 극적 개연성의 약화를 가져왔다. 극의 모든 장면, 서사 흐름은 긴밀한 극적 연계 관계에 의해 구성되어야 밀도 높은 극이 된다. 하지만 극의 결말에 해당하는 베드로의 극적 갈등이 이러한 우연에 의해 해소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없다.

짐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어쩔 수 없이 작가의 손끝을 저지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사회의 통념 내지는 사회적 모랄Morale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야기를 구축하고 써 내려가는 작가의 마음속에는 알게 모르게 넘어서지 못하는 자기검열이 있다. 어떤 부분에 있어 넘어서지 못하는 자기만의 통념의 벽, 어느 누구에게보다 혹독한 작가의 자기검열은 때로 이런 이해하기 힘든 우연을 창조해내기도 한다.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지점이다.

### 동시무대의 구현

연극은 장면과 공간의 제한성을 많이 받는 현장성이 강한 무대 공연이다. 막과 장이 중요시되는 이유다. 하지만 〈오랜 기억〉은 일반적인 연극 무대와 달리 과거와 현실, 인물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기억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장면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동시 무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였다. 영화를 즐겨보는 일반 관객은 연극의 동시 무대와 같은 효과적인 장면 전환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인다. 관객의 눈높이, 시대변화에 요구되는 현대극의 흐름은 확실히 이러한 동시 무대의 구현이 확장되는 흐름을 볼 수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 연극도 다양한 형태로 변주하고 있다.

오페라의 이중창이나 레치타티보Recitativo를 연상케 하는 무대도 선보였다. 상수에 선 희주의 분노에 찬 대사와 하수에 선 베드로의 절규 같은 기도가 동시에 울려 퍼질 때, 음악은 없었지만 마치 오페라의 이중창을 듣는 듯한 느낌이었다. 양쪽에서 동시에 울부짖는 두 인물의 외침은 좌우로 길게 뻗어 있는 프로시니엄 무대에서 시선을 분산시키고, 대사도 섞여 제대로 들리지 않았지만 비탄, 울분, 절규를 표출하는 인물들의 감정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다.

연극 〈오랜 기억〉을 관람하고 난 후 극장에서 나올 때의 느낌은 신선하다는 것이었다. 선악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악과 악의 구조였다는 점, 인간 본성을 다루면서도 관객의 선호도가 높은 반전 스릴러물로 젊은 관객층을 끌어들였다는 점도 높이 살만하다. 관객이 없는 연극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함께 출연한 배우들(최현정, 박규한, 변은지, 이충환, 이설)의 연기 또한 일품이었다. 연출의 기량이 돋보였던 김정환 작가의 다음 작품을 기대해 본다.

## 기도하는 마음 :

# 홍상수의 〈당신 얼굴 앞에서〉

글_김지연 영화평론가

당신의 영화는, 영화란 인위적인 가공을 거친 세계라는 것을 시시각각 일깨워줍니다. 물론 영화는 삶이나 일상이 아닙니다. 종종 그러한 사실을 잊게 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화가 그런 종류에 해당 합니다. 당신의 영화에서 서사는 주로 기승전결의 이야기 구조에서 벗어나 있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건이라 부를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보통은 두 개의 숏으로 나누어서 보여줄 법한 장면을 당신은 굳이 영화의 환영성을 저해하는 요소인 줌인/아웃을 이용해 하나의 숏 안에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영화 속 인물들이 선택한 어휘나 말투, 그들의 연기도 실제 우리 생활의 그것이나 관객이 자연스럽게 느낄만한 연기와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인물들의 대사는 구어口語라 하기에는 다소 어색하게 들립니다. 별 내용도 아닌 말들을 서로 맞장구를 치며 몇 번씩 반복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언어로 번역될 것을 염두에 두고 대사가 씌어 지기 때문이라고도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설명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화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일일이 이유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영화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안에 있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은 각자 조금씩 부자연스럽습니다. 상옥(이혜영)의 말투는 고상하고 또 얼마간은 연극적인 느낌이 듭니다.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가 한때 배우였다는 점,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상옥의 말투가 주는 이질감의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들이 상옥을 이해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 영화를 보는 일 자체에도 그러한 규명들이 매혹을 더 할 만한 요소로 작용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장치와 설정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영화 안에서만큼은 당위나 질서와 같이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상을 그러려니 하고 순순하게 넘겨버리듯 영화 속 상황들을 흘려버릴 수 없도록, 일부러 우리 감각의 틀 안에 걸려들기 위해서, 이 영화의 세계가 인위적으로 구축된 것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주지시키려고 보내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삶과 영화, 양자 간의 차이에 대해 의식하게 되는 순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는 모순적이게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끌어들여 재고하게 되는 순간에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화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영화는 삶도 일상도 아니지만, 영화 안에 담겨서 우리에게 전해져오는 감정과 정서들과 또 삶에 대한 태도 같은 것들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또한 이렇게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삶의 어떤 순간들이 그러하듯이, 당신의 영화는 언어의 유한성으로 묘사해내기 어려운 복합물들로 구성된 우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신의 영화는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우리의 삶과도 닿아있습니다. 오랜 기간 미국에서 지내다 동생의 집에 머무는 하루 하고도 이튿날 아침을 다루는 것뿐인데도 〈당신 얼굴 앞에서〉의 그 소소하고 간결한 서사 안에는 온갖 세속의 감정과 생각과 서로 다른 입장과 욕망과 갈등들이 태연하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 목격됩니다.

영화의 제목은 시한부를 선고받은 상옥이 홀로 있는 순간에 나지막하게 외는 기도의 일부를 가져와 제목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상옥은 바로 지금이 은총이라고, 자신의 얼굴 앞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겠다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을 것을 짐작해 보며 상옥이 만난 몇몇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살던 이태원의 집에 가서 상옥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과거가 생생히 기억난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현재를 확인하고, 그 집에 사는 아이를 가만히 안아봅니다. 더없이 평온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때에 일렁이는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인물의 행위는 이전 작 〈소설가의 영화〉에 있었던 "날이 좋을 때 실컷 다녀보자"라는 구절의 연장선에 있는 실천 같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상옥은 재원(권해효)에게 시한부임을 고백하며 그의 영화에 출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재원은 놀라고 안타까워하는 한편 상옥을 유혹합니다. 다양한 세속의 모습이 거기에 있지만 당신은 날카로운 분석과 주석을 달 생각도 없고 냉소하지도 않는 대신, 작은 위로와 너털웃음으로 그를 보내줍니다. 얼굴 앞의 모든 일들, 다시 말해 세상과 사람과 삶이란 다양한 방식의 미지이고 흥미이자 귀한 선물이기 때문이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당신이 근래까지 발표해온 영화들의 기저에 있던 그것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생각합니다. 꽃양배추를 소중하게 감싸던 손길, 고무 물통을 화분 삼아서 뿌려둔 씨앗들이 움튼 것을 들여다보던 카메라의 눈길 같은 것들이 제 마음을 자주 멈춰 세웠었습니다. 이 영화의 초반에 프레임 한켠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온 상옥의 손길이 저는 당신의 것만 같습니다. 영화 마지막에 가서는 정옥의 손을 살그머니 쓸어보는 것으로 변주됩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움을 거두지 않은 손길입니다. 그리고 상옥은 잠든 동생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 앉아보았습니다. 고요하고 쓸쓸하고 다정한 순간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해서만이 아니라 얼굴 앞의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 깊은 마음이 우리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화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경건한 마음으로 지금을 사는 일, 그리고 다시 당신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는 일 외에 무엇이 더 있을까 싶습니다.

# ‘사색과 그림일기’ 展

글_진수아 부산미술 편집위원

완연하게 겨울로 들어서는 길목이다. 무성했던 나뭇잎이 떨어지자 가끔 거닐던 달맞이길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파리를 떨구어 낸 나무들은 한결 단순해졌고 더욱 명료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산책로를 따라 ‘사색과 그림일기’전(2022. 11. 30. ~ 12. 17.)이 열리는 갤러리 아트숲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온화한 햇살에 따스하게 감싸 안겨 있었다.

정수옥 작가는 어릴 때부터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나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했다고 한다. 그림을 그리며 놀았던 기억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그에게 그림은 놀이이면서 자유이고 희망이었다. 2005년 ‘The Madonna’ 전 이후 지금까지 그림의 주된 내용은 ‘사회와 인간’에 대한 관심이었다. 그중 “어머니가 소중한 아기를 보듬어 안고 있는 모습”에 집중했다. ‘마돈나’는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 이 땅의 성스러운 어머니 모습을 그린 듯 토속적인 느낌이다. 안정적인 구도와 감각적인 색채의 조화가 사색과 명상의 시간을 내어 준다. 이번 전시 ‘사색과 그림일기’ 전은 일상에서 떠오르는 단상을 일기 쓰듯 기록하면서, 환경과 기후에 대한 느낌도 이미지화했다.

지구의 온도가 3℃ 오를 경우 아마존 열대우림이 붕괴되고, 최대 50%의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 맹그로브 숲(캄보디아), 데드블레이(Deadvlei, 죽은 습지), 산불 발생, 나누크 족의 순록, 조그만 나의 정원까지, 작가는 환경과 기후 변화의 이슈에 민감하다. 지금 인간은 자연과의 조화로움을 위한 중대한 도전 앞에 서 있다. 작가는 자연의 거대함에 경외감을 가지며 인간의 유한함을 예술세계에 담았다.

작품 중 「맹그로브 숲에 대한 사색-여행」에서는 대자연의 불가항력인 변화나 난제들이 공포의 중심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바람을 그려 낸 작품이다. 「소중한 것들」은 영화 〈아가(Aga, 2018)〉에 나타난 극한 환경 속 순록과 살아가는 ‘북극의 나누크 가족’의 고단한 삶을 표현하고 있다. 순록이 사라지고 기후가 변하면 그들은 더 살아갈 수 없다. 「뜨락의 즐거움」에서 작가는 소소한 행복을 편안하게 꿈꾸게 하는 여러 요소를 기쁨으로 기록하였다. 「청계알을 품고」는 아프면 몸의 소중함을 알듯이, 이 세상, 푸른빛 달걀의 존재—이렇게 낯선 존재를 처음 알아버린 청란青卵을 표현했다. 새로운 도전이 된 볼펜 작업과 주인공 옷의 무늬가 섬세하다. 「유니콘과 함께-종이꽃으로 경배」 「유니콘과 함께-새벽이 오기까지」 「유니콘과 함께-행복한 생각」에서 유니콘Unicorn은 현실의 동물이 아니다. 이상향이며, 각기 다른 꿈, 바람, 희망을 보여준다. 작가의 모든 작품에는 후광Halo이 있다. 후광은 신성한 인물의 머리 주위에 그려졌지만, 인간은 존재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하므로 몸에는 광채의 기운이 가득하다고 했다.

정수옥 작가의 작품은 아련하면서 중첩되고 몽환적이며 오묘하다. 그림은 완성되지 않은 구조로써 조형의 완결 미를 추구한다. 마음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과 ‘그린다’는 제스처의 흔적은 의식의 직접적 표출이다.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드로잉을 통해 미완된 선형상先形象 이미지와 소재들이 생각의 여백이 되어 준다. 그림에서 여러 겹의 선들은 시간차가 있는 움직임으로 인해 계속 변하므로 에스키스Esquisee를

맹그로브 숲에 대한 사색-여행_193.9×130.3cm, Acrylic on canvas, 2022

통해 화면을 구성한다. 둥근 얼굴의 경계도 물과 여러 붓을 이용한 많은 붓질로 수채화처럼 묽게 그리며 자연스러움을 추구했다. 아름다움과 예술이란 어려운 것이며,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듯이 예술에 정답은 없다.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할 뿐이다.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802-1885)는 "삶의 고통에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세상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작가의 작업은 인간에 대한 애정이 예술의 근본임을 깨닫게 한다. 그림은 작가의 기록이자 철학의 반영이다.

작품 안의 작은 생명체 하나하나, 일상적인 모든 사물에 사랑이 깃들어있다. 주요 인물을 강조하거나 추켜세우는 대신 모든 사물에 숨을 불어넣는다. 그림 곳곳에 청계 알, 오가피 열매, 해바라기꽃, 유니콘, 고양이, 책, 종이꽃, 염주 알, 후광 등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들이 숨겨져 있다. 그림을 자세히 보아야 하는 이유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작가가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품이 너른 사람임을 쉽게 느낄 수 있다. 그의 그림은 종교적 메시지를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사랑의 힘을 피력하며 진정한 포용을 얘기한다. 작품의 분위기를 더없이 평온하게 만들어 내기에, 선호하는 장르에 상관없이 흥미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희미하지만 또렷하고, 고요하지만 외롭지는 않은 분위기는 그만의 표현법으로 창조된 풍경에서 나타난다. 오로지 자연의 소리와 기분 좋은 은은한 향기만 머무를 것 같은 공간이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일상적인 풍경과 사물에서 발견한 따스함을 더욱 짙은 감성으로 공유하는 데에 성공한 듯하다. "행복은 자주 내가 열어 놓은지도 몰랐던 문을 통해 슬그머니 찾아온다"는 존 배리모어(John Barrymore, 1882~1942)의 말처럼, 어쩌면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마음의 습관에 달려 있는지도 모른다. 작품을 감상하고서 작가와 차 한 잔을 하며 얘기를 나누던 중, 그의 동그란 얼굴이 그림 속 인물들의 얼굴과 꼭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기로 채워진 전시장은 가끔 시간이 멈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품게 한다. '그림일기' 같은 작품이 고요한 사색을 선사하는 그런 순간 말이다.

## 부산 공연계의 스테디셀러Steady Seller

# ‘솔리스트앙상블’

글_이혜영 음악칼럼니스트

[솔리스트앙상블]은 활발하게 활동하는 남성 솔리스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매해 연속성을 가지고 공연을 올리는 부산에서 잘 알려진 단체이다. ‘솔리스트’ 즉 ‘독주가獨奏家’는 단독으로 무대를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음악가를 뜻한다. 그런 솔리스트 70명이 모여서 앙상블을 만들었다면 관객들은 어떤 기대로 극장을 찾을까.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들이 남성합창의 진수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는 대체로 비슷할 것이다.

올해의 ‘솔리스트앙상블’ 공연(2022. 12. 4.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는 조금 더 새로운 공연을 올리고자 했던 고민의 흔적들이 보였던 것 같다. 투 피아노Two Piano의 반주로 오케스트라와는 또 다른 맛의 풍성한 반주를 감상할 수 있었던 점이 우선 눈에 들어왔다. 솔로와 내레이션이 결합한 박창민 작곡 강문숙 작시의 창작 연가곡 「독도의 사계」, 사지가 잘린 채 입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산낙지의 애처로운 시점을 웅장한 남성 성악가의 목소리로 듣자니 객석 여기저기 웃음이 터져 나왔던 김준범 작作 「산낙지를 위하여」, 솔리스트 앙상블을 염두에 두고 작곡했을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던 꼭 맞는 옷 「막걸리송」까지 재미와 감동 그리고 예술성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고 싶은 욕심이 엿보이는 과감한 선곡들도 특히 눈에 띄었다. 그리고 소프라노 신정순 님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려준 「동심초」와 오페라 루살카의 「달에 노래Píseň Rusalky: Ó Měsíčku」는 남성 성악가들의 공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에 충분했다. 이외에도 특별출연의 순서로 부산 지역 음대생의 무대는 훌륭하고 의미가 있었지만 공연 러닝타임이 두 시간을 훌쩍 넘겼던 점을 고려하면 부산 공연계의 떠오르는 신예를 소개하는 것은 그러한 취지를 갖고 기획되는 다른 공연에 양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요소들을 선보이려고 하다 보니 공연이 다채로워진 것은 분명하지만 남성 성악가 70인이 들려주는 관객을 압도하는 그들만의 소리와 무대가 조금 아쉬워질 때 즈음 공연이 끝이 났다. 이어진 두 앙코르곡 「돌아와요 부산항에」와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을 부르는 솔리스트앙상블의 모습과 이에 호응하는 관객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쉬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곡의 풍성함은 관객들을 압도했고 대중적인 곡이 주는 힘이 더해져서 공연장 전체가 활기를 띠고 들썩였다. 남성 솔리스트 70명의 공연에 관객들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오는지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번 솔리스트 앙상블 공연은 부산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제작한 공연이다. 그 후원의 취지와 의의는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기초공연예술행사의 지원을 통해 우수한 공연예술의 발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산의 공연예술 기반 구축과 부산 시민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솔리스트 앙상블’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공연을 선보였다고 생각한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선후배 간의 돈독

한 정의 따뜻함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유감없이 보여준 '솔리스트 앙상블'에 우선 박수를 보낸다. 제작자들이 비용 걱정 없이 공연을 만들고 모든 음악가가 음악 활동만으로 온전히 가족의 생계를 넉넉하게 책임질 수 있는 세상은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메세나Mecenat 즉 기업의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사업이나 관의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공연계의 현실은 비단 '솔리스트 앙상블'만의 문제가 아니다. 안타깝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서울과 지방 모두 직면하는 예술 공연계 전반의 문제이다. 그러나 '솔리스트 앙상블'은 그러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열쇠는 바로 수년간 공연장을 찾을 때마다 여느 클래식 공연들보다 확연하게 다른 객석 점유율. 바로 '관객'이다.

물론, 그들이 모두 순수한 유료 관객이라고 확언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표가 정가대로 팔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조심스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도 가시적인 관객 수, 즉 '티켓 파워'는 부정할 수 없는 '솔리스트 앙상블'의 저력이다. 따라서 부족한 지원금으로 인한 출연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보려는 자구책으로써 공연 티켓 판매 수익 중 일정액을 사용하는 관행에 대하여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티켓 판매 수익금은 메세나Mecenat나 관의 지원금보다 훨씬 공연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도가 크기 때문이다. 출연자들은 공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되 티켓의 판매나 수익의 규모와 별개로 보장된 출연료를 균등하게 받고 티켓 판매 수익은 출연자의 처우개선, 단체의 운영, 다음 공연을 위한 재투자 등 다양한 목적과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당장 출연자 개인의 인맥을 통해서 판매되는 수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들 것이다. 하지만, 일반 유료 관객들이 일 년에 한 번 연말 '솔리스트 앙상블'의 공연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반복되는 제작비 부족과 출연자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좀 더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어떤 루트와 의도를 통해서 광고를 접했든 이미 부산에서 '솔리스트 앙상블'은 연말에 변함없이 찾아오는 남성 성악가들의 섬세하면서도 웅장한 하모니로 그 명성을 확고히 하였기 때문이다.

부산의 합창인구 규모는 시립합창단과 직업합창단 및 아마추어 합창단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매우 크다. '솔리스트 앙상블'이 부산 합창의 저변을 더욱 확대하고 나아가 남성합창 창작 작품 발굴에도 기여寄與하며 새로운 합창 레퍼토리 제시의 모델로 설 수 있기를 바란다.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난 극작과 전문 연출을 통해서 마치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공연을 선보일 수 있다면 부산의 공연계에 신선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남성합창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새해 23년 말의 '솔리스트 앙상블'의 공연을 또다시 기대하며 변함없이 공연장을 찾을 것이다.

# 建築正記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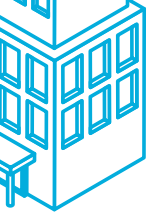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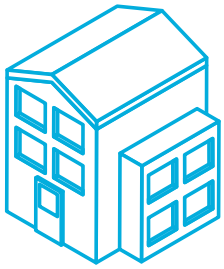
원시시대부터 현대까지 인류의 건축적 행위는 지속되어 왔다. 건축은 스스로 무한의 잠재력을 지녔으면서도 삶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architecture의 어원을 통해서 알 수 있듯 동서양의 건축적 접근 관점은 다르다. 한국에서 '건축'은 '건설'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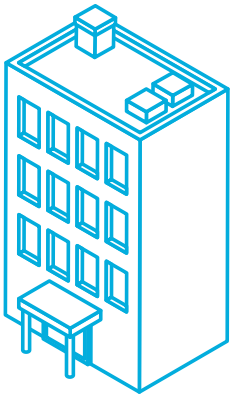
건축적 미학과 시민의 편의성을 고루 살린 건축은 건축가들에게 제대로 일할 기회를 주고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에서 새로운 일상을 누릴 기회를 주며, 지역의 랜드마크로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하지만, 건축은 우리에게 아직은 건물을 짓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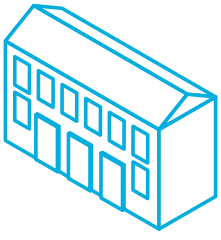
건축예술을 통해 재능과 비전, 책임의 뛰어난 결합을 보여주어 사람들과 건축 환경에 일관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한 생존 건축가에게 수여하는, 건축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The Pritzker Architecture Price' 1회 수상자 필립 존슨은 "문명은 그 문명을 대표한 건축물로 기억된다. 어떤 문명은 오직 건축물로만 기억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건축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진다.

부산시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향토 문화 발전 및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문화예술인을 발굴해 그 정신을 기리고자 1957년부터 부산시문화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 1958년 건설건축 부문에 故 김택진 건축가가 수상했으며, 2012년에는 시각예술 부문으로 강대화 건축가가 수상했다. 2015년에야 공간예술 부문이 신설되면서 정량부(2015) 이상준(2016) 우동주(2018) 김민수(2019) 신호국(2021) 이용흠(2022) 건축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예술부산』은 1월호부터 부산시문화상 수상자들의 건축이야기를 전하려 한다. 지역 건축을 위한 건축가로서의 고민, 건축의 사회적 책임, 위상 등등 수상자들의 생각을 통해 초고층 건물만이 아닌 지역 건축이 나아갈 방향을 한번 더, 함께 공글려 보았으면 한다. 〈편집자 주〉





# 건축의 본질이며 가치인 감동

'건축'이란 단어는 일생을 직업으로 해 와도 막상 맞닥뜨리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장벽이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하고 흥분되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사전적 풀이로 '인간의 여러 가지 생활을 담기 위한 기술·구조 및 기능을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공간예술'이며 '건축의 본질은 쾌적하고도 안전한 생활의 영위를 위한 기술적인 전개와 함께, 공간 자체가 예술적인 감흥을 가진 창조성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기술된다. 기원전 1세기 건축가 비트루비우스Virtruvius의 건축의 세 가지 본질-견고함, 쓸모, 기쁨-은 여전히 유효한 기반이 되어오고 있다. 그러함에도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려운 모호한 것이 건축이다. 역사, 철학, 창작의 지식분류 체계에서 건축은 음악, 회화, 조각, 판화와 함께 창작에 포함되는 과정 등을 지나 예술의 범주에 속함에 이른다.

그러나 건축가는 예술가와 사업가 사이에서 우물거린다.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당당히 내세우지 못한다. 예술가 쪽으로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생존문제를 고민해야 하고 빈곤에 익숙해야 한다.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는 사업가 쪽으로 한걸음 내딛어야 한다. 영업에 소홀히 할 수 없고 생산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건축가로서 예술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불확실성에 맞선다는 것이고 본질에 대한 거듭된 질문을 던져야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익숙하지 않는 것에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수많은 결점들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존재이기에 예술가 쪽으로 치우치기에는 결코 쉬운 영역이 아니다.

작업(설계)을 하는 과정에서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을 꼭 거쳐야 한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순간으로, 긴 터널을 통과하거나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특별한 순간으로, 무수한 상상에서 도출한 개념이 현실로(구체적인 도면) 전환되는 순간이다. 그 잔해들은 수많은 거친 스케치들과 스터디 모형들로서 탐구의 흔적이며 건축의 균형을 잡아주는 특별한 과정이다. 예술은 어떤 의미에서 자서전적이라면 예술을 창조하려는 요구로 가면 자아를 넘어 외부 대상과 관계를 구축하여야 하는 기본특징이 있다. 주변의 모든 요소와 타협하고 조화를 이루며 양보와 이해, 포옹, 끌어들임, 치켜세움 같은 적극적인 자세로 연결하고 접촉하여 실마리를 따라가며 관계를 맺는 것이다. 예술작품은 수많은 관계들의 원천이며, 이러한 관계들은 예술작품의 풍요로움과 복잡성의 원천이 된다. 추상개념인 '건축'이 예술가를 만나면 '감동'이 될 것으로 확신해본다. '감동'은 또 다른 건축의 본질이고 의미이자 가치이기에.

## 동백섬마리나 클럽하우스_2011

동백섬 주변은 자연과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지역 고유 경관을 거스르지 않고 보호하는 조연물임을 자청하는 녹지 언덕 건축물을 만든다. 지상의 건축물이 한 덩어리가 되어 건축물이 부각되거나 경관이 차단되지 않도록 몇 개로 분절시켜 매스 사이로 통시선을 확보, 주요경관이 보호되도록 한다. 녹지 언덕으로 이어지는 경사 언덕에는 산책로가 조성되며 여러 가지 시선을 제공하여 예기치 못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한다. 언덕형 옥상녹지대는 시민에게 개방되어 공공성을 강화한다.

카페와 주택, 야생화정원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가 이 작업의 핵심이 되고 고유의 장소를 만드는 단초가 된다. 각자는 서로 받치고 의지하는 공생의 관계인 것이다. 무대는 정원이요 객석은 카페와 주택이다. 그 관계성을 풀어가는 건축적 장치가 필로티다. 필로티는 관계성을 풀어가는 매개체로 동선을 이루기도 하지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자연스레 분절하기도 하고 이어주기도 한다. 각각의 사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성립시키고 어우러지게 한다. 건축은 타자와 관계맺음으로 존재한다.

## Cafe Pilotis House_2016

## 아미글로벌_2014

작은 보이드Void공간을 매개로 진입이 되고 불규칙하게 뚫린 벽을 따라 수직 동선으로 이어진다. 경계의 겹침은 내·외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새롭고 예기치 못한 관계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고, 이러한 상호작용과 관입을 통해 도시적 경험과 구성원 간의 접촉으로 '길'이 갖는 가치를 둔다. 서로 연결·결합된 열린 환경에서 마음을 열고 더 창조적인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를 키우는 환경을 아미글로벌을 통해 제시하고자 했다.

## 진해희망의집 이약신관_2018

건물의 위치가 구석진 곳에 자리해 어느 쪽이든 부분적으로만 보여지는 탓에 정면이라고 내세울 곳이 없다. 또, 정원마당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여 주변 환경과 새로운 관계방식이 요구되었다. 환경이란 상호의존으로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고 타자와 맺는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곳의 건축이 절박한 것은 동선의 '막힘'과 소통의 '단절'들로서 소외된 장소의 자연스런 '연결'과 '관계'가 건축의 본질이 된다.

글·사진 _강대화 토탈건축사사무소 대표

# 고대의 악기 I

문명 초창기 그림이나 출토된 유물에서 인류가 음악을 즐겼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춤을 추거나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등장하는 악기나 소도구 등의 유물은 음악사뿐 아니라 인류문화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다. 또한 새로운 작품의 모티프로 상상과 창조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 자연에 순응하는 소리

음악音樂은 '소리에 의한 예술'로 정의되며, 음악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기구인 악기樂器는 인간이 예술 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구석기시대부터 발명된 것으로 보인다. 석기시대에 사람들은 바람과 풀, 벌레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모방해서 내고자 악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반도에서도 선사시대부터 악기가 발굴되었다. 사람이 만든 '소리 나는 도구'인 악기는 어떤 용도로 활용되었을까?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악기는 비슷하기도 하지만 차이를 내포한 상징적인 기물器物이었다. 이러한 악기의 다양한 쓰임과 모습을 통해 고대 생활문화를 복원해 볼 수도 있다.

현재 'K-pop(Korean pop music)'이 전 세계인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듯이, 고대에도 음악은 집단의 애환과 정서를 표현하며, 국가 통치에 활용하는 수단이 되었다. 음악을 담고 있는 악기를 통해 고대인의 생활 모습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간의 교류 모습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음악은 한 사회의 사고방식·가치관·심성·습성·언어·예술 등 상당히 많은 양의 문화 정보를 담고 있다.

복천박물관은 지난 2022년, 과거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용한 악기의 의미에 주목하였다. 무사 안녕을 비는 치유의례 장소에서 음악은 신과의 소통 기구가 되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일상을 이겨내기를 기원하는 곡들은 우리에게 치유와 희망의 기운을 전해주는 듯하다. 선사시대부터 의식과 여흥의 현장에 함께 했던 악기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밝혀보는 것이 특별전 개최의 목적이었다. '고대인의 생활에 음악, 악기는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해서, 선사·고대 유적 출토 악기와 연주 관련 그림 자료를 한자리에 모아보았다.

##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와 악기를 든 인물

선사시대 사람들은 주어진 자연환경 속에서 돌이나 나무, 동물 뼈 등의 도구를 활용해서 생존해 나가야 했으나, 갑작스러운 자연의 변화에 생존의 위협을 받을 일도 많았다. 따라서 선사시대 사람들은 생업 활동의 안전과 풍요로운 결실 등을 기원하기 위해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러한 의례 유적을 산 정상·해안가·강가 등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함경북도 굴포리 서포항 유적 및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유적도 이에 해당한다. 함경북도 굴포리 서포항 유적에서는 뼈로 만든 피리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유적의 바위에는 피리와 비슷한 악기를 든 인물상이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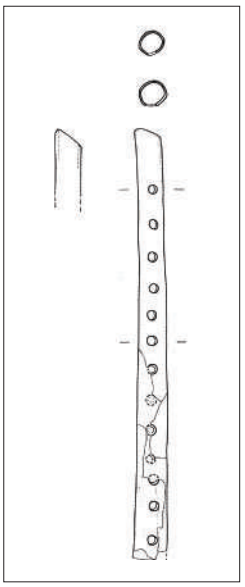


그림1 서포항출토 뼈피리

함경북도 굴포리 서포항 유적 피리(그림 1)는 함께 출토된 유물과 지층의 분석으로 기원전 2000년경으로 밝혀져,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로 판명되었다. 이 유물은 조선

**좌** 피리와 비슷한 악기를 든 인물상 **우** 암각화 전체도면 / 울산암각화박물관 제공

중앙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2006년 국립중앙박물관·주)문화방송·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공동주최한 〈북녘의 문화유산-평양에서 온 국보들〉 전시에서 소개되었다.

이 악기는 새의 뼈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여러 조각으로 깨진 채 출토된 것을 붙여서 거의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한 것이다. 손가락을 막는 구멍이 일렬로 13개 뚫려 있다. 한편 이러한 피리 유물을 도량형 도구로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구멍이 일렬로 거의 일정 간격으로 뚫려 있고, 악기를 짚는 손가락 구조를 생각하면 13개의 구멍은 매우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세종대왕을 도와 아악을 정리한 박연이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율관律管인 황종척黃鍾尺을 만든 사실도 있어, 피리는 도량형 도구로도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암각화岩刻畫는 절벽이나 바위의 편평한 면에 음각으로 그린 그림을 말하는데, 당시의 생활상이나 의식 행위를 파악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1971년에 울산광역시를 가로지르는 태화강 상류의 지류인 대곡천 절벽에서 발견되었으며, 국보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암각화가 새겨진 바위의 크기는 너비 약 8m, 높이 약 5m이다. 바위에는 고래와 같은 바다 동물, 호랑이·사슴·멧돼지 같은 육지 동물들과 배를 타고 고래 잡는 그림, 육지에서 짐승을 사냥하는 모습, 울타리 안의 동물 등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악기 든 인물 그림은 두 손으로 긴 막대기를 입에 물고 있으며 성기가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으며, 측면으로 쪼아 새긴 전신상이다. 긴 막대기는 형태로 보아 피리와 같은 악기로 추정되며, 사냥의 성공을 비는 기원 의식과 동물의 위협을 알리는 신호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선사시대에는 딱히 악기로 연주했던 곡들이 악보로 남겨져 있지는 않지만, 두 사례를 통해 악기는 연주용, 신호용, 종교적 의례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호에서는 기원전 4세기경부터 등장했던 다양한 청동악기류를 검토하여 태양신을 숭배했던 한민족의 종교관도 살펴볼 것이다.

글_임소연 복천박물관 학예사


**참고 문헌**

· 이영진, 2016, 『인간과 악기 악기인류학』, 세계민속박물관.
· 전인평, 2007,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 음악』, 현암사.
· 전호태, 2013, 『울산 반구대암각화 연구』, 한림출판사.
·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3, 『조선유적유물도감1』, 동광출판사.
·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3, 『조선유적유물도감5』, 도서출판 민족문화.
·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3, 『조선유적유물도감6』, 도서출판 민족문화.
· 권오성, 2009, 「기록과 유물로 본 우리 음악의 역사」, 『한국 문화사』 25, 국사편찬위원회.
· 조현종, 2006, 「한반도 선사시대 악기」, 『북녘의 문화유산』, 국립중앙박물관.
· 조현종, 2015, 「韓半島 先史時代 樂器의 社會相」, 『동아시아 고대 악기-光州 新昌洞遺跡 出土 絃樂器의 復元的 檢討-』, 국립광주박물관.
· 김용간·서국태, 1972, 『서포항 원시 유적 발굴 보고서』, 『고고 민속 논문집』 4, 고고학 연구소.
· 국립중앙박물관, 2006, 『북녘의 문화유산』.
·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국악원, 2011, 『우리 악기, 우리 음악』.
· 울산암각화박물관, 2013, 『한국의 암각화Ⅲ 울주 대곡리 반구대암각화』.
· 울산대곡박물관, 2015, 『울산대곡박물관』.
· 울산암각화박물관 자료실 https://www.ulsan.go.kr/s/bangudae/contents.ulsan

## 제22회 오늘의 작가상 수상자 발표
## 본상 조용문, 청년작가상 서은혜

**본상** 조용문

**청년작가상** 서은혜

부산미술협회(회장 박태원)가 시상하는 '제22회 오늘의 작가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오늘의 작가상 '본상'은 서양화 조용문 작가, '청년작가상'은 서양화 서은혜 작가에게 돌아갔다.

심사는 2022년 12월 21일 부산미술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심사위원장 이광준을 필두로 한 심사위원단(강이수 김정혜 김수미 김지영 장희옥 추준호)은 정성적 평가(70%)와 정량적 평가(30%)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각 수상자가 선정되었음을 밝혔다. 오늘의 작가상 본상을 받은 조용문 작가는 "서양화의 현대적 조형성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패턴으로 대작 및 많은 전시를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청년작가상을 받은 서은혜 작가는 "최근 3년간의 국내외 많은 작품 활동과 함께 현대적 표현과 다양한 회화성을 반영한 작품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조용문 작가는 한반도가 분단되지 않은 '대동여지도'를 조형적으로 재현하여 작품화하는 등, 지도를 독창적인 조형 언어로 사용하는 「Image of map」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개인전 26회, 단체전 150여 회 등 활발한 활동으로 작품세계를 펼쳐가는 중이다. 서은혜 작가는 마티에르가 돋보이는 「Flower Trip(꽃 나들이)」 「비밀의 화원」 등의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KBS· MBC·TVN·JTBC 등 각종 방송국에 작품 협찬, 라디오에서 미술 관련 코너 진행 등 다방면에서 활약했고, 2022년 한국예총 회장상을 받기도 했다.

오늘의 작가상은 투철한 작가정신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우수 작가를 발굴하여 회원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지역 미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본상 및 청년작가상 수상자의 개인전은 2023년 중에 금련산역 갤러리에서 각각 개최하게 된다. 시상식은 1월 26일 부산미술협회 정기총회에서 열린다.

문의 051)645-3900

## 부산예술회관 청년아카데미
## 뮤지컬, 스트릿 댄스 등 강좌 신설

**~ 1. 27.(금) 모집**

시민을 위한 예술·창작 교육의 산실인 부산예술회관이 '청년아카데미'를 신설했다. 트렌디하면서도 쉽게 보기 힘든 4개 강좌 ▶나도뮤지컬배우 ▶스트릿키즈파이터 ▶나도틱톡스타 ▶뮤랑프리를 개설하여 지역 청년들이 예술문화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내재한 예술적 능력과 창조적 가능성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 대형공연장의 신규 개관이 다가오는 요즘, 공연예술에 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뮤지컬 배우 과정을 배우고 성과 발표를 위한 공연무대에 오를 수 있는 프로그램은 2가지다. 만 9~24세는 Busan Street Arts Festival 등에서 공연, 각종 뮤지컬에 출연한 배혜린 강사의 '나도뮤지컬배우'를, 만 19~39세는 뮤지컬 〈상상병환자〉를 연출하고 뮤지컬 〈바라던바다〉 등에서 배우를 맡은 강유정 강사의 '뮤랑프리'를 수강하면 된다. '뮤랑프리'는 개설이 완료됐으므로 추가 모집을 원하면 문의를 요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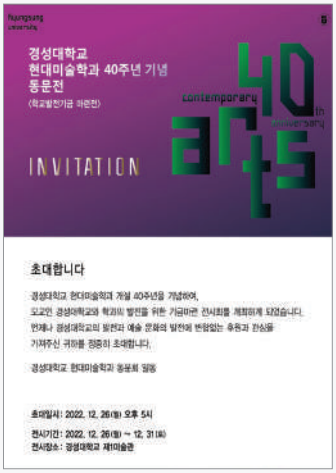
스트릿 댄스 열풍으로 춤에 관심이 생겼다면 팝핑, 락킹, 프리스타일 등을 배울 수 있는 '스트릿키즈파이터'가 있다. 만 9~24세를 대상으로 하며 각종 공연과 댄스배틀 수상 경력이 있는 이단비 강사가 가르치고 청소년예술제에서 성과 발표 공연을 할 수 있다. MZ 세대에게 핫한 안드로이드 기반 플랫폼 '틱톡'에 유용한 케이팝 안무 블로킹 과정을 배울 수 있는 '나도 틱톡스타'는 만 9~24세를 대상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각종 공연과 댄스배틀 수상 경력이 있는 정예진 강사가 가르치며 청소년예술제에서 성과 발표 공연을 할 수 있다.

문의 070-4206-9140 / '부산예술회관 아카데미' 카카오톡 채널 문의

## 김미소 ‘내외하는 공간의 콜라주’

**2022. 12. 20.(화) ~ 25.(일)**
**금련산역갤러리**

김미소 작가의 개인전 ‘내외하는 공간의 콜라주’가 금련산역갤러리에서 열렸다. 독특한 전시 제목에는 ‘아주 잘 알지만 전혀 모르는 관계’에 관한 작가의 생각이 담겨 있다. 우리는 모나리자, 살바도르 달리 등을 언뜻 특징만 잡아 그려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진짜 그 인물을 아는 건 아니다. 작가는 ‘겉’을 알면 ‘속’은 굳이 알아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요즘을 ‘내외한다’고 정의한다. 해당 문제에 관심 없는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게 예술가의 역할이라 생각하는 그의 작업은 사회적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회화, 텍스트,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선보인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 경성대학교 현대미술학과 40주년 기념 동문전

**2022. 12. 26.(월) ~ 31.(토)**
**경성대학교 제1미술관**

경성대학교 현대미술학과(전, 회화과) 동문회가 40주년을 기념하는 동문전을 개최하고 중견작가부터 신진작가까지 64인의 작품을 전시했다. 이번 동문전은 예년과 달리 모교인 경성대학교와 학과의 발전을 위한 기금마련 전시회로 기획됐다. 한국화·서양화·판화·입체·미디어 등 다양한 미술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대미술학과 전·현 교수를 비롯한 동문들은 후학 양성을 위해 한마음으로 작품을 기증하고 출품했다고 한다. 전두인 동문회장은 “이번 전시는 40년간 행적을 뒤돌아보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후배들의 창작활동에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라며 모교와 학과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 창작뮤지컬 〈달래〉

**1. 6.(금) ~ 1. 8.(일) 금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2시, 5시 / 일 오후 2시**
**무대공감 소극장**

창작뮤지컬 〈달래〉가 카페 젬스톤 영도점에 위치한 복합문화예술공간 ‘무대공감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2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공연예술분야’에 선정된 박치열이 극작과 연출을 맡았다. 채현은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고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로 살아간다. 생활비가 떨어져서 셰어하우스 임대인을 모집하는데 취업준비생 달래가 임대인으로 들어오게 된다. 꿈 많은 디자이너 지망생인 달래의 ‘취업뽀개기’를 도와주며 채현은 서서히 보통의 청년으로 돌아간다. 청년세대 공통의 고민인 취업을 소재로 했지만 이야기는 따뜻하고 유쾌하게 펼쳐진다. 박문수, 강유정, 이채현 배우가 출연한다.

문의 010-2111-3873

## 어린이뮤지컬 〈책 먹는 여우〉

**1. 7.(토) ~ 8.(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독일 트로이스도르프상 수상, 교보문고 어린이 도서 베스트셀러 1위를 거머쥐며 어린이 필독서로 꼽히는 프란치스카 비어만의 작품 『책 먹는 여우』가 뮤지컬로 꾸며졌다. 주인공은 책을 너무나 좋아해서 읽고 먹어치우는 여우다. 맘에 드는 책에는 소금과 후추를 툭툭 쳐서 먹는 여우는 도서관에서 책을 훔쳐먹다가 잡히지만, 너무 배가 고파 직접 써서 만든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다. 입체적인 세트와 고퀄리티 의상, 원작 등장인물 외에 거미, 좀벌레 등이 추가로 등장한다. 책을 읽을 때 필요한 게 소금과 후추로 대변되는 '생각'과 '상상력'임을 알려주는 교훈이 있다.

문의 010-2284-4842

## 김민우 전

**~ 1. 8.(일)**
**아트소향**

김민우는 작가는 덩어리(Shape)로 세계를 표현하는 작업을 한다. '어떤 것이 새로이 나타나려면 이전의 것은 흔적으로 혹은 기억으로, 즉 과거의 무엇으로 되어 사라질 때나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물음으로서 혹은 응시되는 것 자체로 보전한다면 가능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고 덩어리 작업은 그것을 평면 회화라는 화면 속에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덩어리들은 결국 또 다른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응시 자체 혹은 또 다른 질문인 셈이다.'(작가노트 중) 작가는 다채로운 색감으로 세상을 '덩어리'라는 조형언어로 치환하는데, 작가의 눈으로 직접 마주한 풍경 또는 사물들에게서 느낀 감각과 에너지를 덩어리들 간의 조화, 공존, 흐름을 독특한 추상 풍경으로 보여준다.

문의 051)747-0715

##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1. 10.(화) 오후 7시 30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부산시향과 함께하는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가 1월 10일 화요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지휘 최수열, 사회 김석훈, 첼로 송영훈, 바이올린 대니구, 피아노 박종해,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으로 화려한 출연진을 자랑한다. 빛나는 미래를 꿈꾸는 이들에게 바치는 곡으로 유명한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시작으로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슬라브 무곡 작품46 중 제8번」,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천둥과 번개, 폴카」 「트리치 트라치, 폴카」 등이 펼쳐지고 마지막 곡은 역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제1번」이다.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갖춘 곡들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더없이 적합하다.

문의 051)630-5211

## 한인성 개인전

**~ 1. 19.(목)**
**부산대학교아트센터**

부산시민들에게 폭넓은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온 부산대학교 아트센터가 '부산대학교와 부산미술 DOCUMENT 시리즈'의 두 번째 전시를 개최한다. 그 주인공 한인성 작가는 1975년부터 부산대학교 미술교육과 및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교육과 연구를 통해 많은 제자를 배출했으며 1세대 조각가로서 부산미술계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이번 전시는 그의 수십 년 작품 세계를 한 자리에 아우른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이후까지 철재, 나무, 청동 등을 재료로 한 작품에는 현대 한국 조각이 거쳐온 거대한 흐름이 담겨 있으나 그 속에서 독자적으로 구축한 작가만의 예술 미학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51)510-7323

## 윤병운 '느슨한 숲'

**~ 1. 20.(금)**
**카린갤러리**

카린갤러리에서 윤병운 작가의 '느슨한 숲' 전이 열린다. 나무가 빽빽하게 모여 있는 것을 뜻하는 숲을 '느슨하다'고 표현한 것은 사건이 일어난 과거와 현재 시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밀도감의 저하, 혹은 또렷함이 사라지고 먹먹해지는 현상에 관해 이야기하려는 의도다. 임의적으로 편집된 기억은 시야가 흐려지듯 하얗게 표현된 화면에서 눈 플레이크가 부유하는 공간으로 표현된다. 실존하는 듯 자세하게 그렸지만, 상상의 산물인 집이나 신화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양 역시 무의식의 대상이다. 이번 전시에는 격자창 너머로 내다보는 눈 풍경을 그린 높이 3m 대형 작업을 포함한 평면작업물 64점과 영상 작업을 선보인다.

문의 051)747-9305

## 바깥에서 온 어느 울림

**~ 1. 20.(금)**
**킴스아트필드미술관**

이번 전시는 우리의 일상적인 '바깥의 땅'에서부터 시작해 그 위에 두 발을 딛고 살며 울고 웃는 어느 개인의 작은 이야기를 다룬다. 유현욱 작가는 산불 현장에서 검게 탄 잿가루와 나뭇가지 아래에서 발견한 초록의 생명에서 오랜 시간 탐구해온 생사의 경계를 발견했고, 손민광 작가는 산을 오르며 겪은 다양한 자연에서의 경험을 수집, 해석해 자신만의 자연 세계로 펼쳐 보인다. 두 작가는 산과 자연이 우리에게 보이는 가장 보통의 방법으로 재현하지 않고, 생명이 시작되는 바로 그곳을 다종적으로 감각하며, 그 위에 겹겹이 새겨진 시간의 흐름과 삶의 결을 수집해 공유한다. 미술관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문의 051)517-6800

## 윤혜영 ‘파리, 기억의 습작’ 전

**~ 1. 22.(일)**
**부산프랑스문화원 ART SPACE**

파리에서 오래 작업하다 해운대로 옮겨온 작가에게 롤 모델은 현대미술의 아이콘 ‘루이즈 부르주아’다. 간결한 그 이유는 ‘여성성’이다. 작품 곳곳에서 상징 소재들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알에서 새끼가 깨어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키고 보살피는 암컷 문어의 모성애와 무성생식을 하는 생물학적 특성을 통해 여성성을 강조한다. 또, 근대화를 ‘유토피아’로 해석한 소재들은 파리의 지도를 거미의 집처럼 묘사하거나 콧대 높은 파리지엥을 코코 샤넬에 비유해 풍자하기도 한다. 환상을 현실적으로 비난을 예술적으로 직설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윤혜영의 파리는 여성이 가정이 아닌 사회적 위치에서 자리매김하는 오늘과 닮아 있다.

문의 051)746-0055

## 강강훈 개인전

**~ 1. 29.(일)**
**조현화랑 해운대**

대형 캔버스를 채우는 사실적인 인물표현과 정밀한 묘사, 다채로운 색채로 극사실 회화의 계보를 잇는 강강훈 작가의 개인전이 조현화랑 해운대에서 열린다. 그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그림으로 그려낸 현실(Realism)과 현대인들이 사는 현실(Reality) 사이의 관계를 재해석하게 한다. 재현을 위한 묘사가 아닌 인물의 감정선을 따라 내면세계로 진입하는 것이다. 작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는 그리움으로 목화를, 소중한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존재로 딸을 그렸다. 이번 전시는 목화만을 다룬 소품과 인물이 함께한 대형 작품을 선보이며 보다 확장된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문의 051)746-8660

## 2023 새해맞이 굿Good이로구나!

**1. 7.(토)/14.(토)/28.(토) 오후 3시**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국립부산국악원이 굿Good의 ‘즐겁다’ ‘기쁘다’ ‘좋다’의 의미를 담아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민속예술보존협회의 신명을 담은 무대를 선보인다. 7일은 (사)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가 구덕망깨소리(제11호, 이하 시무형문화제 표기 생략)와 부산고분도리걸립(제18호) 중 성주풀이, 부산농악(제6호)을 펼친다. 14일은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가 수영지신밟기(제22호) 당산풀이와 성주풀이, 좌수영어방놀이(국가무형문화재), 수영농청놀이(제2호) 수영야류(국가무형문화재) 등을 공연한다. 28일은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가 출연해 동래지신밟기(제4호)와 동래고무(제10호) 동래한량춤(제14호) 등을 선보인다. 국악원은 ‘계묘년 새날에 펼쳐질 굿Good이로구나!가 부산지역 정월의 대표적인 세시풍속으로 자리 잡길 희망한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문의 051)811-0114

## 강유나 초대전 'The 특별한 동행'

**~ 1. 29.(일)**

**갤러리 한스**

감상자의 얼굴에도 미소를 피워내는 이번 전시는 강유나 작가의 초대전으로 함께해서 행복함에 대한 이야기다. 시샘하듯 꽃을 흘겨보는 고양이도 있고, 민들레 꽃향기라도 맡으려는 듯 하늘을 향해 얼굴을 쭈욱 펴고 눈을 감고 망중한에 빠진 강아지도 있다. 귀여운 고양이가 강아지를 바라보고 강아지는 또 다른 무언가에 집중한다. 우리네 인간관계도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닌지. 작가는 최소 3~4가지의 색상을 섞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색을 만들고 나이프를 이용해 독특한 질감을 구현한다. 전시 수익금의 10%를 유기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는 이번 전시는 단순한 작품 소장이 아닌 기부라는 가치로운 활동에 동참할 수 있다.

문의 010-4574-0660

## 제18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포스터그림 공모

**~ 1. 31.(화)**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이하 BIKY)가 2023년 7월 행사에 앞서 제18회 BIKY포스터그림 공모전을 연다. 주제는 '전쟁은 싫어! 평화가 좋아!'.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어린이들의 참혹성을 목격하며 세계 곳곳에서 지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쟁 지역의 어린이들이 트라우마를 딛고 평화롭게 커갈 수 있도록 따듯한 관심을 기울이자는 취지다. 만 5세부터 12세 어린이는 누구든 참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공모신청서를 접수하고 출력한 뒤 8절 스케치북 크기에 형식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작품 뒤에 공모신청서를 붙여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마감일은 1월 31일까지. 선정된 작품은 제18회 BIKY메인 포스터 제작에 활용되며 수상자에게는 일 4회 관람할 수 있는 게스트 배지도 제공한다.

문의 051)995-7603

## 김은미 Push a Button전

**~ 2. 4.(토)**

**LB Contemporary**

현실 세계가 어떻게 또 다른 모습으로 다양하게 변형되고 재구축되어 수많은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시다. 작가는 대상이 가진 고정된 의미체계를 해체하고 재맥락화 하여 새로운 세계를 제시한다. 작가는 공간에 건물 개체들을 부유하는 형태로 배치하고 각 개체를 연결하는 통로를 통해 개체들이 공간 전체를 구성하는 네트워크가 되게 했다. 공간은 캔버스 사각 틀 전체에 분산된 탈중심 구조로 배치되어, 개체의 수, 즉 연결점의 수가 많아질수록 끝없이 확장하는 네트워크 공간과 유사한 모습이다. 화면 가운데 사각의 캔버스는 시뮬레이션 하는 가상버튼으로, 기계들의 움직임을 상상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문의 051)756-2110

## 덫 김길수 / 세종출판사

'장삼이사들이 꿈꾸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로 「뒤통수 미남」 「다시 봄날」 등 13편을 엮어 두 번째 작품집으로 발간했다. 「로또 팰리스의 꿈」은 평범한 직장인 김과장이 '추첨기가 고장이라도 났을까? 어떤 경우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애초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일'인 로또에 당첨된 후 골절상을 입게 돼 요행을 바랐던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야기이며, 「덫」은 중앙의 월간 문예지에 게재할 희곡을 청탁받은 주인공의 작품이 표절 시비에 휘둘리게 된 내용을 담았고, 「못」은 '아내의 시신경이 이 소리에 놀라,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믿음이 거짓말처럼 솟아났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 봤던' 주인공이 아무 데나 함부로 박아서는 안되는 못을 소재로 모든 게 시기가 있고 때가 있음을 재밌게 풀어낸 단편이다. 부산소설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작가는 '서울국제노인단편영화제'에서 대상을 받는 등 부산영화인협회(감독분과)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한국 현대문학과 지역문학 양왕용 / 도서출판 작가마을

여러 문인단체의 임원으로도 활동해온 시인은 문학 심포지엄이나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거나 좌장으로 참여하며 한국문학의 현상을 짚었고 나아가 문학이 독자들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한 방안들을 고심했다. 제1부는 전국 단위의 현대시 관련 심포지엄의 주제 발표와 탄생 100주년 시인의 작품론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문학 행사에서 발표한 글들, 제2부는 지역문학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글들을 편집했으며, 제3부는 전국 각 지역 현역 시인들의 작품세계를 조망한 글, 제4부는 해외 문인들 작품의 특성을 살핀 글들이다. 작가는 "이 글들 중에는 각급 자치단체의 행정당국에 당부하는 구체적 제안의 글들과 문인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한 문학의 위상 회복이 결론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안내한다. 작가는 현재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 동북아기독교작가회의 한국 측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부산지하철 1호선 풍경 사진단체 중강 / 헥사곤

노포에서 출발해 동래 서면 조방 앞을 지나 다대포해수욕장까지, 부산의 지하철 1호선을 중심으로 지역의 중추적인 기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단체 중강] 34명의 회원들은 '임란과 항쟁의 역사성, 일제강점과 한국전쟁의 상흔, 근대화와 민주화의 흔적, 국제교역과 다문화의 현장, 서민의 삶과 재래시장, 문화예술공간, 자연마을과 골목, 종교공간, 공원과 자연, 부산의 번영과 미래비전'으로 목차를 구성해 부산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지닌 곳을 찾아 촬영하고 전시를 열고 사진집으로 엮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회원들은 부산의 역사를 공부하고 도시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했으며, 이를 토대로 부산의 미래비전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다. 사진집에 수록된 600여 컷은 회원들의 수만 컷 중에 기록의 의미를 넘어 각자의 주관적 해석과 예술적 표현까지 반영해 문진우 지도교수가 선별했다.

MECENAT & SUBSCRIPTION

# 부산의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을 메세나로 모십니다.

## 메세나 광장 MECENAT

『예술부산』은 메세나가 되어주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기반을 닦았습니다. 『예술부산』과 함께 부산의 예술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메세나를 찾습니다.

### 메세나 광장

**안 감 찬** BNK부산은행 은행장
**손 병 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예술부산』을 후원하는 광고주가 되시면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5조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드리며,
**둘째**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고,
**셋째** 월간으로 발간되는 『예술부산』을 보내드립니다.

## 정기구독 SUBSCRIPTION

월간 『예술부산』은 부산 시민과 예술문화인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서면 영광도서에서 해당 호를 구매할 수 있고(정가 5,000원)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예술부산』 정기구독 신청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또는
**이메일** artbusan@daum.net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하시고 **1년간 구독회비 30,000원**을
입금하시면 해당 호부터 보내드립니다.

부산은행 101-2024-8255-00
예금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은 여러 장르에 걸친 예술문화의 향기를 더욱 많은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 편집실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E-mail** artbusan@daum.net

# 예술아카데미 academy

**접수기간 : 분기 시작 1달전~개강일**
접수방법 : 전화, 방문 접수 (부산예술회관 302호)
* 카카오톡 채널 접수 가능 '부산예술회관 아카데미' 검색
**계좌이체 : 부산은행 310-01-001290-2**
*** 수강료 납부 후 꼭 연락 바랍니다.**

## 1분기 (2023년 1~3월)

| 순번 | 프로그램명 | 모집인원 | 요일 및 시간 | 수강료 |
|---|---|---|---|---|
| 1 |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 170명 | 화) 13:30-15:30 | * 3개월 3만원 |
| 2 | 한국무용교실 | 20명 | 목) 14:00-15:50(심화반) | 3개월 9만원 |
| 3 | | 20명 | 목) 16:00-17:50(기초반) | 3개월 9만원 |
| 4 | 아랑고고장구 | 20명 | 수) 14:00-15:30 | 3개월 9만원 |
| 5 | 라인댄스(오전반) | 20명 | 화,목) 11:00-11:50 | 3개월 9만원 |
| 6 | 댄스 스포츠 | 20명 | 화,목) 10:00-10:50 | 3개월 9만원 |
| 7 | 가곡교실 | 20명 | 화) 10:00-12:00 | * 3개월 15만원 |
| 8 | 너도나도 방송댄스 | 20명 | 월,수) 17:00-17:50 | 3개월 15만원 |
| 9 | 통기타 반주법과 연주 | 20명 | 수) 16:00-18:00 | 3개월 15만원 |
| 10 | 1:1 프리미엄 피아노클래스 | 20명 | 월) 11:00-13:00 | * 3개월 36만원 |

※ 수강료 외 재료비, 반주, 교재비 별도

# 청년아카데미 academy

**접수기간 : 22.12.1.~ 23.1.27 (2개월)**
접수방법 : 전화, 방문 접수 (부산예술회관 302호)
구글폼 접수 : https://prfl.link/@artbusan
* 카카오톡 채널 접수 가능 '부산예술회관 아카데미' 검색

## 상반기 (2023년 1~6월)

| 순번 | 프로그램명 | 모집인원 | 요일 및 시간 | 수강료 |
|---|---|---|---|---|
| 1 | 청년뮤지컬클래스, 뮤랑프리 | 25명 | 토) 13:00-17:00 | 1개월 5만원 (1~6월 과정) |
| 2 | 청소년뮤지컬클래스, 나도뮤지컬배우 | 30명 | 화) 17:00-19:00 | 1개월 8만원 (2~4월 과정) |
| 3 | KPOP클래스, 나도틱톡스타 | 20명 | 수) 17:00-19:00 | 1개월 10만원 (2~4월 과정) |
| 4 | 스트릿댄스클래스, 스트릿키즈파이터 | 30명 | 목,금) 17:00-18:00 | 1개월 8만원 (2~4월 과정) |

문 의 : 070-4206-9140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 우리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위　　치**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51층

방문 전 관람문의 (051-662-2559)
관람료는 무료이며, 토/일 ·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E이로운 S세상을 G그리다
BNK 금융그룹

BNK부산은행은
찾아가는 베란다 콘서트, 언택트 릴레이 봉사,
리플 환경운동 등
적극적인 나눔과 봉사로 더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행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 BNK 부산은행이

# 세상을 응원하는 방법

조금 달라진 세상,
서로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변화하는 내일을 향한 발걸음에
BNK부산은행이 먼저 찾아가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구의 건강한 회복을 위한 일에 앞장서며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정가 5,000원
9 771976 974008 01
ISSN 1976-9741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